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SEP 13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21~922 1982년 9월7일(화) 8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 Wednesday, September 7 & 8,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강경식재무 IMF 총회 기조연설
보호무역 완화촉구
한·미재무회담도· 85년 대회는 서울서

제37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합동연차총회가 16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을 포함, 146개국의 2,500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토시내 쉐라톤·센터호텔에서 6일 오전 10시 개막되었다.

개회식에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토의에서 강재무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침체에 빠져있는 세계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IMF와 세계은행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된다고 역설했다.

80년대에는 가중되는 어려움과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정책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외채상환에 보다 고전할 것이라고 전망한 강장관은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정책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하고 IMF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조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것을 요청했다.

강장관은 이어 한국경제에 관해 언급하면서 한국경제는 81년부터 회복세로 전환, 80년의 6%의 마이너스성장에서 81년도에는 7%의 실질성장을 이룩했으며 지난 2년간 국내물가도 상당히 안정되고 국제수지도 호전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강장관은 6일 오전 이번 총회의 미국대표단 단장인 도날드·레이건 미재무장관과 약3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레이건장관으로부터 미국은 한국경제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다짐받았다.

면담이 끝난뒤 강장관은 레이건장관이 한국이 범미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에 회원이 되도록 미국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경식재무장관을 단장으로 하영기한국은행총재, 주병국재무부기획관리실장, 이용성재무부국제금융국장, 하동선경제기획원차관보와 박유광청와대비서관등을 포함하는 한국대표단은 L.A를 경유 5일 토론토에 도착했다.

이들 대표단외에도 산업은행총재, 수출입은행장, 외환은행장, 중소기업은행장, 국민은행장및 장기신용은행장등 주요은행장들이 이번 연차회의에 옵서버로 대거 참석하고 있다.

레이건장관과 면담이 끝난뒤 강장관은 쉐라톤호텔에서 와다나베 일본대장성(재무부)장관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했다.

강장관은 이번 총회중에 A.W.크라우센 세계은행총재등 유력인사들과 만나 공동관심사를 토의할 계획이다.

지난번 총회에서 이번 총회의 부의장으로 피선된 바 있는 강재무장관은 7일 오후3시부터 열리는 토의에서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한국대표단은 9일오후 미국으로 향발, 시카고, 뉴욕, LA등지를 순회하며 한국경제설명회를 가진후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3년마다 열리는 IMF·IBRD 연례회의가 캐나다에서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차기회의는 85년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메트로경찰이 "은행가들이 제3세계의 유아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다."라고 쓴 항의피켓을 들고 쉐라톤호텔의 IMF·IBRD연차총회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던 한 시위자를 가로막고 있다. 이번회의 주최국인 캐나다는 유사이래의 삼엄한 경계를 펴고있다.

미니해설 IMF·IBRD란?

45년에 발족된 IMF의 현재 회원은 156개국이며 한국은 55년도에 가입.

설립목적은 (1)국제통화의 협력과 국제무역확대를 통한 소득증대 (2)환율안정 (3)가맹국간의 다면적 결제제도의 확립과 환제한 폐지 (4)자금이용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 (4)단리자금융통등에 두고 있다.

한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으로 불리는 세계은행은 47년 유엔전문기관으로 발족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 부흥을 위해 저리장기대부를 하고 있으며 한국은 55년에 가입했다.

관동대지진때 학살 한인유해 발굴작업
동경국교 교사등 앞장

(동경) 일단의 동경시민들은 59년전 관동대지진때 학살당한 수십구의 한국인들의 유해발굴작업에 들어갔다.

유해발굴작업을 시도한 국민학교교사 유끼·기누따씨(51)는 시체를 발굴다시 매장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도식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동대지진으로 9만명이상이 사망했는데 일본민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한국인을 6천명이나 살륙했었다.

◆개학 첫날의 모습— 긴 여름방학후 첫 등교한 한 크리스찬학교의 두 꼬마가 밀어닥치는 졸음을 참지못한채 그만 입을 벌리고 큰 하품을 하고 있다.

계엄해제않으면 폭파
무장괴한들 폴랜드대사관서 인질극

(베른, 스위스)반공주의자로 자처하는 일단의 무장괴한들이 6일 스위스 베른의 폴랜드대사관을 점령하고 48시간내에 폴랜드정부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대사관을 폭파하고, 건물내에 갇혀있는 1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폭하겠다고 위협했다.

폴랜드 혁명자위대 비소키대령으로 자처하는 이 괴한들의 지도자는 6일 전화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중무장했으며, 13명의 외교관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의 ATS통신은 인질중 임신부 1명이 6일 자정 리무진에 실려 나왔다고 보도했다.

비소키 대령은 8일 아침까지 폴랜드정부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대사관을 폭발시키겠다고 말했으나 무장괴한들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스위스경찰은 범인들이 3명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폴랜드 관영 PAP 통신은 '12명으로 보도했다.

7일현재 테러리스트들과 협상을 진행중인 스위스경찰과 법무성 관계자들은 무장괴한들이 조금도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사관 창문밖으로 던져진 메시지에 따르면 이들은 1)계엄해제, 2)정치범석방, 3)집단수용소 철수및 4)폴랜드국민 탄압종식을 요구하고 나섰다.

폴랜드는 작년 12월13일 계엄령 선포이후 650명의 솔리대리티 지지자들을 감금시켰다.

비소키 대령은 이 극렬단체가 솔리대리티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고, 스위스당국과 솔리대리티 대변인도 이 단체에 관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화이트상병 자발적 이탈"
초소철망자물쇠 총으로 쏴부숴
주한미군 대변인

(서울)지난 28일 북한으로 정치적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조셉·화이트상병은 초소자물쇠를 총으로 쏘아 부수고 이북으로 넘어갔다고 2일 주한미군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화이트상병이 그의 초소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철망의 자물쇠를 총으로 쏘고 자발적으로 근무를 이탈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히고 그가 『도망해 왔다는 북한의 발표가 맞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케쥬얼·웨어류 기술도입 박차

(서울6일=연합)금년초 발표된 정부의 학생교복자유화 조치와 서울에서 열리기로 되어있는 86년도의 아시안·게임과 88년의 올림픽경기를 앞두고 세계각국의 유명 케주얼·웨어 제조기술및 상표가 한국에 대거 진출을 꾀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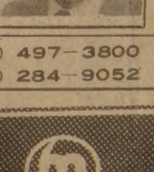
6일 상공부 소식통에 의하면 한국의 종합무역상사인 반도상사와 삼성은 최근 Jordache사및 Jacque Jaunet S.A.사와 진(Jean)류 제조기술및 상표사용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반도상사는 JORDACHE상표를, 삼성은 NEW MAN상표를 오는 10월부터 사용, 케주얼·웨어를 제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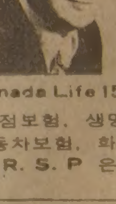
이들 회사들은 총매상고의 5%를 Jordache사와 Jacque Jaunet사에 로얄티로 지불하게 되며 총생산량의 25%를 수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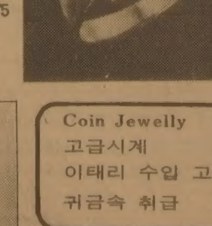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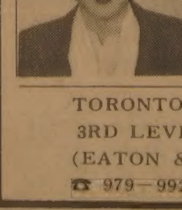
현재 한국에는 케주얼·웨어 생산업체가 3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중 상당수가 외국회사와 진종류 제조기술및 상표 사용계약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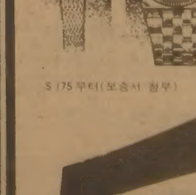
한편 신세계백화점과 삼성은 불란서의 피에르·가르뎅과 지방쉬의 상표가 붙은 넥타이를 오는 10월부터 각각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De 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 Reg. 1,000.00
—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OMEGA
오메가시계 남·녀용

S 175 부터(보증서 첨부)
가을맞이 대매출
세일기간 : 9월10일부터 19일까지
오전10시~오후9시까지
※세무, 가죽제품,
섬유원피스,
브라우스, 바지등.
50% OFF
LONDON FOG
(런던·포그)
남·녀코트

울세무(남·녀용)
코트·투피스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추석맞이—
럭키국립공원 단체관광
(2차모집)
◆일시 : 1982년9월14일~9월21일(7박8일)
◆방문일정 : 제스파공원2박 · 벤프공원2박
캠룹스1박 · 뱅쿠버/빅토리아시2박
◆요금 : $650
◆포함된사항 : ● 왕복항공료 ● 숙박비(4인1조) ● 관광버스 ● 안내자
◆신청마감 : 1982년 9월11일 까지
● 예약금 $100 청부
◆기타 : ● 취소할 경우 예약금은 반환치 않음
● 요금은 예고없이 변동될 경우도있음
● 한국인 안내자가 출발서부터 귀환까지 책임 안내함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at PARLIAMENT)
366-0960, 368-9018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야구대회

승패를 가른 투수의 위력

플레이어스, 피처보강 우승

왕년의 명수 재집결 U of T 준우승

◆우승트로피를 않은 플레이어스팀과 임원들. 좌로부터 타격상의 폴·홍(플레이어스), 진행위원장 박재선씨, 장려상의 강용구(플레이어스)대회장 이건영씨, 진행위원 정세용씨.

야구의 주역은 피처

올해 창단, 첫 대전인 7월말 토론토한인회 주최 한인야구대회에서 본선과는 아득히 먼 예선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플레이어스팀이 이번 브랜든스포츠배쟁탈 제2회 추계야구대회서는 피처 천경호군을 보강, 당당히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지난 4일과 5일 2일간 센테니얼파크 구장에서 10개팀 출전으로 벌어진 동야구대회는 예선리그를 거쳐 8개팀 본선진출, 토너멘트로 자웅을 가려, 플레이어스는 준우승 토론토대학팀을 9:3으로 눌러 월계관팀이 됐다. 이에 앞서 플레이어스는 준결승에서 미도파를 15:11로 눌렀다.

토론토대학팀은 4년전 창단해에 교민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래 해마다 계속 예선탈락의 부진을 보이다가 창단 4년만에 본선진출, 이번은 창단당시 멤버가 전원 복귀, 준준결승에서 지난 7월 한인회 주최 야구대회 우승팀인 중앙한인연합교회팀을 9:8로 이기고, 이어 화랑을 꺾고, 그 승세를 몰아 우승을 노렸으나 플레이어스에게 덜미를 잡혀 준우승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3등은 미도파팀.

한편 OB팀은 출전 2개팀, 동부장로교회가 베델교회를 큰 스코어차로 눌렀다.

지난 7월 한인회 야구대회 준우승을 차지한바 있는 연합교회팀은 반수이상의 선수를 교체, 팀워크에 난맥상을 보여 준준결승에서 무릎 꿇었다.

◆수상팀·개인상

우승: 플레이어스
준우승: 토론토대학
3등: 미도파
최우수선수상: 천경호(플레이어스)
피처상: 전승원(토론토대학)
타격상: 폴 홍(플레이어스)
미기상: 이호진(미도파)
감투상: 정철화(화 랑)
장려상: 강용구(플레이어스)

◆출전팀

플레이어스·토론토대학·미도파·연합교회·한인장로·화랑·새한·중앙한인교회·자이안트·청룡.

◆O.B.팀: 동부장로교회·베델교회

지난7월31일~8월1일의 토론토한인회 주최 교민야구대회에는 12개 대표팀, 5개 OB팀 출전 성적은 아래와 같았다.

◆대표팀 우승: 중앙한인, 준우승: 연합교회.

◆OB팀 우승: 천주교회, 준우승: 연합교회.

한편 작년 9월6일의 제1회 「바시티배」(현 「브랜든스포츠배」) 야구대회서는 우승 연합교회, 준우승 한인교회(15:13)였다.

『TV한국』 방영시간변경

토론토한인회 운영 「한국TV」 방영시간이 9월15일부터 아래와 같이 바뀐다.

◆MTV: 15일(수) 아침10시–30분간
◆Rogers: 18일(토) 저녁7시–30분간
◆City TV: 19일(일) 아침8시–30분간

따라서 앞으로 수요일·토요일·일요일 위의 시간에 방영된다.

헐리웃에서 드물게 긴 결혼생활을 이끌어온 배우중의 하나인 정치가 지망의 미남배우 로버트·레드포드가 24년간의 결혼 종지부를 찍었다. 작년에 부인 롤라가 강도의 침입을 받았을 때 로버트·레드포드가 부인과 함께 있지 않고 뉴욕의 아파트에 있었음이 드러나 파경에 이르렀다는 루머가 파다했었는데 결국 루머가 맞아 떨어진 셈·

일부 83년 차값내려

GM사, 경쟁 대처

82년도형 차 판매량이 38%가 떨어진데 자극받은 제너럴·모터스(GM)사는 83년도형 일부 모델의 값을 내려 일본차동과의 판매경쟁에 대항하고 있다.

잘 팔리는 폰티악·화이어버드 같은 모델의 값은 올랐다.

포드, 크라이슬러 자동차회사는 새차 값을 밝히지 않았다. 어메리칸·모터스가 프랑스 르노회사와 합작해서 내놓은 얼라이언스(Alliance) 가격은 $6,450이다.

보통 자동차회사들의 차값은 GM차값의 변동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GM은 셀레브리티(Celebrity), 2–도어, 쿠페의 값을 전년도 값에서 376달러를 내려 $9,650로, 폰티악 2000, 시보레·카발리에 같은 J–카 값은 $590~779가 내렸다.

폰티악·아카디안, 뷰익·스카이락등 37개 모델의 값은 전년도 값 수준으로 묶었다.

이와 반대로 화이어버드는 $9,440에서 $9,891로, 시보레·카마로는 $9,083에서 $9,539로, 시보레·카프리스·크라식은 $10,248에서 $10,753으로 올랐다.

포드사는 83년도형 가격이 평균 2.5%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페어몬트(Fairmont)는 단$1이 올라 $7,401, 머스탱 L 2도어는 6.5%가 올라 $8,061이 된다.

교민동정

◆김영자=9월부터 미시사가한글학교 교장 책임을 맡았다. 남편은 옥빌 거주 최승남씨. 3년간 교장으로 수고한 문가자씨의 바톤을 이어받은 김교장은 학교발전과 학생들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빈=수년전 노상강도를 추격, 격투 끝에 잡은 용감성 때문에 토론토시경찰국으로부터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이씨는 신부 전계향씨와 함께 5일 하오 충현교회에서 결혼감사 예배를 가졌다. 신부는 성악을 전공했다. 이날 예배에는 약2백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이씨는 충현교회 이광옥 장로의 2남이다.

◆어린이음악경연대회가 끝나 꼬마성악가들이 각기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교민 어린이 성악에 약해"

어린이음악콩쿨, 유치부만 출전

토론토한인장로교회·교회학교가 주최한 제4회 어린이음악콩쿨대회가 8월28일(토) 독창부문 25명, 중창부문 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됐다.

유치부 조영란(대한교회), 유년부 최인섭(베델교회), 초등부 이현경(한인장로교회)가 각부문 1등으로 뽑혔고, 중창부문에는 1등 해당자는 없이 베델교회가 2등, 캐나다순복음교회가 3등을 차지했다.

심사원 박재훈 박사·송경란씨는 이날 평가에서 "한국인 자녀들이 나이가 들수록 한국어 발음이 나빠지고, 성악을 회피, 기악부문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나 성악부문에 약해진다. 유치부 어린이들만 대거출전한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음악경연대회는 78년부터 매년 교회학교연합회 주최로 거행돼 오다 올해는 한인장로교회가 주최했다.

각부문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유치부
1등 조영란(대한)
2등 서태헌(한인장로)
3등 조혜원(캐나다순복음)

◆유년부
1등 최인섭(베델)
2등 정은임(중앙한인)
3등 한지선(한인장로)

◆초등부
1등 이현경(한인장로)
2등 장민경(제일)
3등 유한나(제일)

◆중 창
1등 해당 없음.
2등 베델
3등 캐나다순복음

중앙교회 창립10주년

장로2명 취임 『천지창조』공연도

토론토 중앙교회(담임 정관일 목사)가 오는 12일 창립 10돌을 맞아 기념예배, 장로장립, 권사 취임식및 기념음악예배등 푸짐한 기념행사를 벌인다. 이번에 장립될 장로는 조진동, 이성민 집사이며, 김주원, 조수옥, 박묘식 집사가 권사로 취임된다.

신자수 약 250명(어린이 포함)을 가진 중앙교회는 또한 내년 창립기념예배때 완공을 목표로 약 33만달러의 새 교회건물 부지구입을 끝내고, 현재 설계단계에 있다. 2에이커에 달하는 새 교회부지는 Q.E.W.와 딕시 동남쪽에 위치하며 건물규모는 500명 수용 교회당과 150대 수용 주차장및 교육관이다.

토론토 한국인 교회로서는 4번째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앙교회의 창립10주년 기념행사는 12일 하오1시 기념예배, 5시 장로장립 권사 취임, 6시30분 축하연에 이어 18일(토) 하오7시30분 하이든의 「천지창조」 1,2부를 이성민 지휘, 유선애 반주로 중앙교회 성가대가 연주한다.

출연진은 소프라노 이영숙·이은경, 테너 유진, 베이스 양하옥등이다.

토요한글학교도 갖고 있는 중앙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약 70P.에 달하는 「10년사」도 편찬할 예정이다.

모든 기념행사는 중앙교회(502 Bathurst St., Toronto× College)에서 벌어지며 전화번호는 961–8361.

82~83년도 볼링전

34주간 연속 리그 개시

토론토 한인볼링협회(회장 정용필)주최 82~83년도 볼링리그가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하오6시30분 푸로펜·핀·볼(877 Wilson Ave.)에서 오픈된 첫날 게임에는 40여 볼러가 참가했다.

34주간 계속되는 금년 리그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열린다. 작년 참가했던 볼러가 야간근무등으로 참가할 수 없을 경우를 감안 협회는 그들이 푸레·볼(그주 아무때나 이 볼링장에 나와 3게임을 함)로 친 기록을 인정, 시상한다. 기록은 볼링장에 맡기면 된다.

한편 리그에 참가는 안하더라도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볼링을 하고자하는 이들을 위해 협회는 매주 금요일 하오6시30분 같은 리그장에 스페어·레인을 준비한다.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YOU DID A GOOD JOB.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case로 이민 온 한 대학생이 학교에서 영문법에 관한 시험을 보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문법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터인지라 시험 결과는, 단연 미국학생들을 누르고 1등을 하게 되었는데, 한 classmate가 다가 와서 어깨를 톡톡 치면서 You did a good job.이라고 했다.

문장중에 good job 이라는 단어가 들리자 좋은 직장을 구했느냐고 묻는 줄로 착각을 하고 얼른 「직업을 못 구했다」는 뜻으로 I don't have a job. 이라고 해버렸다. 그 말을 들은 미국인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때 do a good job이란 to perform well(무슨 일을 잘 처리해내다)는 뜻의 숙어로써 그 학생이 한 말은 「이번 시험에 잘 해냈다」는 의미로 한 말이었다.

연설을 훌륭히 해낸 사람에게 You did a good job.하면 될 것이고, 외국인 buyer와의상담을잘해내서큰거래(deal)를튼사람에게 You did a good job.하면 된다.

다시 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사건 이후 그 학생은 문법은 아예 덮어두고 회화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는 학교생활에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회화는 역시 문법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우선 배짱을 두둑히 가지고 되든안되든말을많이해보고틀리는시행착오의연속에서잉태되는것이다.

A: Jerry, I was very happy with your presentation yesterday.
B: Thank you, sir, I did my best.
A: Well, you did a good job. You had some excellent ideas.
B: I enjoyed working on it.
A: I want you to do another presentation next month.
B: Thank you.

A: 제리, 어제 당신의 발표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B: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했죠.
A: 아주 훌륭히 해냈어요. 근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더군요.
B: 이런걸 준비하는게 즐거웠읍니다.
A: 다음 달에 또 하나 해주길 부탁해요.
B: 감사합니다.

※I did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다. did는 문장속에서 대화체로 발음될 때는 〈디드〉가 아니고 〈딛〉이라고 발음한다.

presentation: 발표.

학생모집

스카보로에 위치한 샛별한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급수: 4학급(유치반·초·중·고)
학생수: 각학급 25명
등록및 개강일: 1982년9월11일(토)
학교명: WOBURN COLLEGIATE
위 치: 2222 ELLESMERE RD.
수업시간: 오전9시~오후1시반(한글교실)
오후1시반~오후3시반(예능교실)

문의처: 291–3479 (MR. 박)
293–3149 (MRS. 리)

샛별한글학교
대표 문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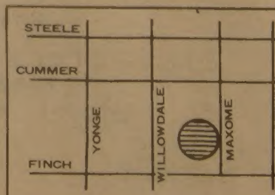
NORTH YORK BOARD OF EDUCATION

노스욕 한글학교
가을학기안내

아래와 같이 한글학교를 개강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등록을 바랍니다

일시: 1982년9월9일(목) 오후6시 등록 9월16일(목)오후6시 수업
장소: NORTH MOUNT JUNIOR HIGH SCHOOL
(70 MAXOME AVE.)

❖ 유치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등 4반으로 분반하여 훌륭한 교사진에 의해 책임지도 합니다.



※등록일 9일 오후6시에 학부형 회의가 있겠읍니다.
모든 학부형은 참석하여 주십시요.

노스욕한글학교 교장 이 인 용
학부형 회장 신 영 식

미시사가한글학교

교사채용공고

1982~83년도 새학기를 맞아 아래와 같이 우수한 교사를 채용코자 합니다.

1. 대상과목: 한글·음악·미술 각 약간명
영어·수학(단, 현재 중고교사에 한함) 각 약간명
2. 구비서류: 자필이력서(한글)1통
3. 대 우: 현직 교사 대우에 준함
4. 마감일자: 1982년9월13일
5. 연 락 처: 미시사가한글학교
1439 ARONBRIDGE DR.
MISSISSAGA, ONT.
L5G 3G6
☎: 274–6127

미시사가한글학교장
김 영자

「바바라」에 물으세요

▲필자.

이것이 북미생활이다

결혼선물은 친분따라 스스로 기준 정하도록

상가에 돈은 금물·조의카드 정도면 족해

○문: 얼마전 캐네디언 친구로부터 딸이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받았읍니다. 저희들은 이들과 그리 가깝지는 않은데 이 결혼식에 참석하고 선물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또 보통 잘 모르는 캐네디언들의 결혼선물로 대략 어느 정도의 돈을 소비하는지요.(돈밀즈 엄)

●답: 캐나다에서는 친척이나 친구 또는 친지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청첩은 그저 청첩에 그칠뿐 반드시 참석해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불참하면 그런대로 이해가 되니까요.

어떤때는 아주 먼곳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청첩을 보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그러나 피로연까지 초대받은 사람은 보통 다 참석합니다. 피로연초대는 청첩장 아래에 어디에서 몇시에 있다고 짤막하게 알리거나 별도카드를 넣어보내지요.

얼마짜리 선물을 사가지고 가느냐는 어디까지나 귀하가 얼마나 이 사람들과 가까우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읍니다.

요즘은 보통 20~50달러 정도의 가구나 가정 장식용 물품등의 실질적인 물건을 삽니다. 물론 결혼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그 가격은 제한이 없겠지요.

캐나다에서도 한국에서처럼 결혼은 즐거운 행사여서 보통 대중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을 사람들의 명단을 따로 두었다가 결혼식 후에 결혼을 통보하기만 하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종류의 청첩이란 하나의 결혼의 통보이지 선물을 받으려는 통지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결혼통보에 대해 카드로 답하는것이 항상 적절합니다.

○문: 저와 절친한 캐네디언 친구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셨읍니다. 저는 그 친구와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뜻에서 한국식대로 조의금을 보내고 싶은데 괜찮을런지요.(스카보로 최은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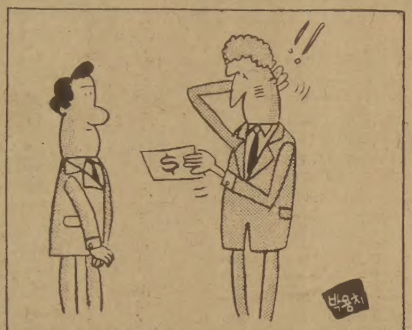
●답: 절대로 돈은 보내지 마십시요. 이곳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 스스로 해결하는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돈을 보내면 쉽게 납득을 못할 것입니다. 가족문제나 슬픔은 가족 스스로 해결한다는 사고방식이 철저히 새겨져 있으니까요.

따라서 장례식에 꽃을 보내거나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카드를 보내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일부가족은 장례식에 꽃을 보내는 것을 사양하고, 대신 그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해주기 원하기도 합니다.

당신께서 꼭 돈을 보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는것도 한 방법이겠읍니다.

또한 좀더 유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싶으면 유가족의 친지에게 전화해 어린이를 돌봐주거나, 교통편의를 봐주는등 일상사의 잡다한 일을 도와주겠다는 뜻을 표할 수 있지만 유가족과 아주 친하지 않으면 곤란하겠지요.



金聖鍾作

어떤 殺人 ⑩

개를 毒殺하는데 성공한 두봉은…

이튿 아침이었다.

S제약 옆에는 빈 공터가 있는데 아침이면 인근의 개들이 몰려들어 한바탕 개판을 친다.

두봉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옆자리의 영업부 직원이 눈을 감은채 벌써 일어나느냐고 물었다.

「자네가 코고는 바람에 한숨도 못잤어.」

「그렇다면 미안한데요.」

「내가 출출한데 빵좀 먹지 않겠나?」

「뭐 먹을 게 있어야지요.」

「가만있자. 나가서 우유라도 하나 사와야지.」

회사를 나온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구멍가게까지 가서 빵과 우유를 샀다. 회사 정문을 통과하면서 수위에게 빵 하나와 우유 하나를 넣어주고 숙직실로 돌아왔다.

영업부 직원과 함께 우유와 빵을 나누어 먹고나서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2층 화장실로 올라갔다.

용변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잠근 다음 창문을 열었다. 거기서는 빈터가 환히 내려다보였다. 개들이 한창 뛰어놀고 있었다. 모두 다섯 마리였다. 호주머니에서 빵을 꺼냈다. 비닐봉지를 뜯어내고 빵속에 청산을 몇방울 떨어뜨렸다.

개들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빵을 던졌다. 개들은 먹을 것인줄 모르고 도망쳤다. 그런데 그중 누런 개 한 마리가 슬금슬금 다가왔다. 먹을 것인줄 아는 순간 개는 냉큼 그것을 물고 구석쪽으로 달려갔다. 뒤이어 점정개 한마리가 재빠르게 그 뒤를 좇아갔다.

두 마리의 개는 으르렁거리면서 순식간에 빵을 먹어치웠다. 다른 개들이 달려왔을 때는 그들은 아쉬운듯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다. 빵을먹은 누런 개와 점정개는 갑자기 약속이나 한듯 비명을 지르며 뒹굴기시작했다. 개 주인인듯한 사람과 행인들 몇명이 급히 다가와 발버둥치는 개들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두 마리의 개는 눈을 까뒤집고 거품을 허옇게 뿜으며 죽어갔다.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것은 매우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두봉은 담배 꽁초를 변기속에 버리고 물을 흘려보낸 다음 밖으로 나왔다. 실험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한편 날이 밝자 돈자는 오늘이 자기한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새벽같이 일어났다. 그리고 가정부를 깨우지 않고 손수 밥을 짓고 집 안팎을 치웠다.

「아니, 당신 웬 일이야?」

언제나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가는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잠이 안 와서요.」

그녀는 남편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몸도 안 좋으면서 왜 그래? 애를 깨우지 않고.」

「괜찮아요. 적당히 일하는게 몸에도 좋대요.」

「하긴 그래. 일을 하면 밥맛도 좋아지니까.」

남편이 산책을 나간 뒤에도 그녀는 열심히 쓸고 닦았다. 그것으로 불안을 씻기라도 하려는듯.

그러나 남편이 출근하고나자 그녀는 불안해서 견딜수가 없었다. 학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는 어린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그녀는 미친듯 볼을 비벼댔다.

「엄마, 왜 그래?」

아들은 엄마를 밀어내며 의아해했다.

朴男 그림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63>

학생들 암기력에 카페인 영향없다

妊産婦가 커피를 즐겨마시면 正常兒보다 미숙한 애기분만

(워싱턴)시험공부를 하면서 잠을 덜자기 위해 커피를 많이 마시는 학생들이 카페인의 영향으로 암기력이 감퇴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구학자들이 전했다.

모리스에 있는 미네소타대학 심리학자들은 8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카페피와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등을 각기 다르게 4그룹으로 나누어 마시고 48시간 후 시험을 치렀다.

시험결과 암기력에 대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만 외향적인 성격의 학생은 내향적인 성격의 학생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다.

인이 기억력과 관계가 있는가를 실험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카페인은 진정제의 효과와 다르며 일반적인 상식은 그릇된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했다.

실험에 자원한 학생들은 1시간동안 표준교과교재를 학습한뒤 카페인이 든 커피와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등을 각기 다르게 4그룹으로 나누어 마시고 48시간 후 시험을 치렀다.

이와 다른 연구에서는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산모가 아기를 출산했을때 일반적인 정상아들보다 약간 미숙하고 근육이 약하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이같은 카페인의 영향은 하루 1,2잔 마시거나 5,6잔을 마시거나 양에 상관없이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전문.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243-9544
1391 WESTON RD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三國志 (454)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게·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전 사형수!

이인수 집사의 산증언

←강사 약력→

- ○전 육사 육군대학및 국방대학원 교수
- ○전 국가재건 최고회의 비서실장및 특별보좌관
- ○현 새문안교회 집사
- ○평신도 전도단장
- ○새마을 연수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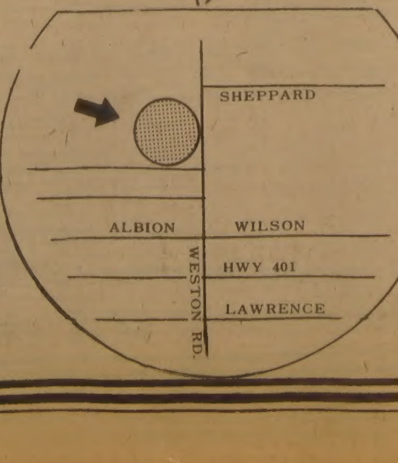
※출감후 5년간에 600회 집회인도

일　시: 1982년 9월 9일~12일 (목, 금, 토, 주일)
4일간 (하오7:30)

집사수련회: 9월11일(토) 오전10시

장　소: 반 석 교 회
2840 Weston Rd., Weston, Ont.

연락처: 746-5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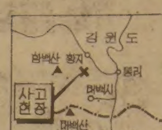
반석교회 당회장 양세주 목사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太白탄광 埋沒광부4명 14일만에 劇的구출

地下2백50m…"꼭 산다"
물·坑木껍질로만 延命
교대로 파이프두드리며 계속 信號보내
배태창、손순광、전재운、김기전氏

【太白=朴珍列·朴榮基기자】 지난8월20일상오 7시께 太白시 함성광업소(사장 길두한) 태백탄광에서 채탄작업중 지하수가 터져 매몰됐던 배대창(41·太白市黃池2洞11통3반) 손순광(38·"黃池2洞11통4반) 전재운(47·"禾田2洞6통3반) 김기전 씨(23·"禾田1洞5통4반) 등 4명의 광부가 사건발생 14일째인 3일하오 4시43분께 극적으로 구출됐다。이들은 거의 빈사상태에서 구조됐으나건강은 14일간 지하2백50m지점에서 갇혀있던 사람답지않게 단기간에 회복이 될정도로 양호한 편이었다。



이들은 구조즉시 눈을 가리고 담요로 몸을 감싼채 長省병원과 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있다。

모두가 사망했을것이라고 포기했던 이들의 생존이 확인된것은 이날 하오3시께였다。이들이 매몰된후 구조작업을 계속해온 구조반은 배씨등이 갇혀있는 태백탄광본사 갱입구로부터 2백50m지점지하2편마장10m전방에서 갱도를 파들어가던중 막장3m전방에서 파이프를 두드리는듯한 소리를 들었다。

이들이 살아있는게 아닌가본구조반은 갱도를 더보수해나가며 갱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 불빛을 비추자 이들이 꿈틀거리면서 손을 흔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비추였다。

구조반이 환성을지르며『살아있느냐』고 소리치자 배씨등도『살아있다』고 14일간이나 갇혀있는사람답지않게 또렷또렷하게 대답하고 흔들었다。

이들과 대화를 나눈 구조반원 이강득씨(43·장성광업소보안과장)에 의하면 배씨등은 사고당시 지하수가 터져나와 갱안이매몰되자 막장뒤쪽40m지점에있는 대피소로 긴급대피했다。그동안지하수와갱목껍질의즙을 내며 고 서로를 격려하며 틀림없이 구조된다는 신념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다。

이들은 13일이 지난2일하오부터 갱안의 물이 빠져나감에 따라 구조의 손길이 가까이 왔음을 확신, 구조반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할수있도록 파이프를 교대로 두드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밖을 향해 조금씩갱도를 파나왔다는것。

이날하오 4시43분 극적으로 구조반의 품에안긴 이들은 구조된 사실이 믿어지지않는듯 감격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는데『2주일이 지났는데도 구조작업을 계속해준 당국에 감사한다』며 말을잇지못했다。

사고가나자 한성광업소는 인근광업소에서 모두 17대의 양수기를 지원받아 20명씩으로 구성된 3교대의 구조반을 편성, 24시간 구조작업을 펴왔다。그러나 계속 비가내린데다 지난26일에는 태풍엘리스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다시 갱도가 침수 되는바람에 한때 이들의 구조는 절망적으로 보이기까지했었다。

생존경위

"恐怖와 虛氣 끝내 이겨내"

14일만의 생환은 한편 장엄한 인간승리의드라마였다。아무도 그들이 갱속에『그토록 오랫동안 생존해있으리라고는 생각못했다。

3일하오 갱밖으로 구조된 매몰광부 배대창씨(41)등 4명은 양볼이 움푹들어가고 광대뼈만 앙상히드러나 있어 그들의 생사와의 투쟁이 얼마나 극한상황까지 이르렀나를 짐작케했다。

구조된 광부 배씨는 14일간의 갱속생활은『죽음의 공포와 허기와의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배씨등은 매몰14일간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사고로 갱구가 무너지면서 일행4명은 서로가 살아있음을 알아차리고 한군데로 몰렸다。따로따로 있는것보다 한꺼번에있는게 우선은 안심이었다。한순간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로했다。일행은 과거에 16일동안 갇혔다가 구조된 楊昌善씨를 생각, 힘을 냈다。

처음엔 지하수가 갱내로스며들어와 무릎까지 찼다。일행은 손이나 삽등으로 물을 계속 퍼냈다。그래도 물은계속 스며 들었다。몇시간이지났을까。물이 조금씩 빠지는 것을 눈치챘다。일행은 힘이 솟았다。물이 빠진는것은 갱밖에서 구조대가 구조작업을 착수했다는것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하루 정도가 지나자 배가 고파왔다。그러나 먹을것이없었다。3일정도 아무것도 먹지못하고지냈다。더이상 굶주림을 참을수없었다。처음엔 지하수를 마시며 지냈으나 물만으로 허기를 달랠수는 없었다。갱목껍질을 곡괭이로 긁어내 마셨다。

밝히기로했다。

"訪阿 후속조치 早期실천"
全대통령 內閣에지시
獨立기념관 募金참여를

全斗煥대통령은 3일 아프리카 4개국및 캐나다 순방에 따른 後續조치를 각부처가 적극협조해 早期에 실천토록하라고 內閣에지시했다。

全대통령은이날하오 靑瓦臺국무회의를 주재, 金埈成부총리로부터 순방결과를 보고받은뒤 이같이 지시하고『이번순방을 계기로 아프리카와 긴밀한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캐나다 알래스카등과는 유대를 더 강화, 우리의 많은 人力이 이지역에 진출해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이 문제를 보다 긴밀히 연구하고 일원화하기 위한 專擔班구성문제를 總理室 주관아래 조속한 시일안에 검토토록 하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秋夕을 앞두고 勞賃滯拂、不公正거래、關省客수송、각종 안전사고 예방책등 만반의 대책을 각부처별로 철저히 점검해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고『두차례에 걸친 태풍피해로 인한 모든복구 조치를 秋夕이전에 끝내도록해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하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와함께 다가오는 秋夕을 분수에맞는 간소한명절로 지내도록 모든공직자와 指導級인사들이 솔선수범 하도록하고 이웃돕기운동을 적극전개토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 82년도 모든정부 시책에 대해 순조롭게 진행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미진한부분도 계획대로 실천에 옮기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獨立기념관 건립성금모금계획을 보고받고『시기적으로 늦은감은있으나 좋은계획』이라고 말하고『정부예산으로 하는것보다는국민이 정성을 모아 건립하는것이 더욱 뜻이 깊기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이에 적극 호응할수있도록 특히 정부의 공직자들이 성의를다해지원해야 할것』이라고말했다。

全대통령은『獨立기념관건립은 전국민의 주체의식과민족의 얼을 살린다는 점에서 더욱 뜻이 깊으며 이는 後世에 국민정신교육을 위한 道場이될것』이라고 말하고『우리는 이를 계기로 國力배양과 국민의 주체의식 함양,그리고 국민들의 和合과 단결을 이루는 차원으로 승화시켜야할것』이라고말했다。

全대통령은 또『특히 언론기관들이 자발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치하하고『정부 각부처는 성의를 다해 직원들을 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임직원들에게 권유해서 모금운동에 적극참여하도록하고 이에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권유토록할것』이라고 강조했다。

李漢基 감사원장 내일字 停年퇴임

李漢基감사원장이 5일字로 停年 퇴임한다。

80년9월 임명된 李원장은 지난해 4월 새 헌법에 따른 再任命절차로 임기가 85년4월까지로 돼있으나 65세 停年규정에 따라 퇴임케 된 것이다。감사원은 4일상오 李원장의 퇴임식을 갖는다。

獨立기념관 건립에 全대통령도 金一封

全斗煥대통령은 3일 상오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해 생방송으로 모금운동을 벌인 文化방송에 黃善必 청와대대변인을 보내 金일봉을 전달 했다。

佛 조베르貿易相 13일에 訪韓

조베르프랑스對外무역상이 우리나라정부 초청으로 오는 13·14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다。

"放送체제 계속 改善"
李文公 公營化 아직도 未洽

李振羲문공장관은 3일우리는 지난20여개월동안 公營放送의 기본정신을 수행키위해 여러방면으로 노력해왔으며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당초의 목표에비해 그 실적은 상당히 未洽하는점을 인정치않을수 없다』고 지적,『그동안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면밀히 분석해 지금의 제도와 체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발전적으로 바로잡는 조치를 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날 서울세종회관에서 거행된「放送의날」기념식에서『公營방송제도는 자칫하면 創毅力과 活氣의부족으로 경직성과비능률에 빠지기쉽다』고지적하고『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내부에도 경쟁과능률의 원리를 적절히도입해 창의성과發刺性이 충분히 발휘될수 있도록 제도적장치가 수반돼야할것이며 이런의미에서 現공영방송체제의 改修는 계속검토돼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방송의내용면에서도 公營化 20여개월의 실적은 만족스러운것이 아니라고 밝히고『國營방송은 오히려 과거 상업방송의 폐단을 많이 도입했고 과거의 상업방송은 부분적으로 공공성이 보강됐음에도 여전히 低俗을 벗지 못하고있는인상』이라고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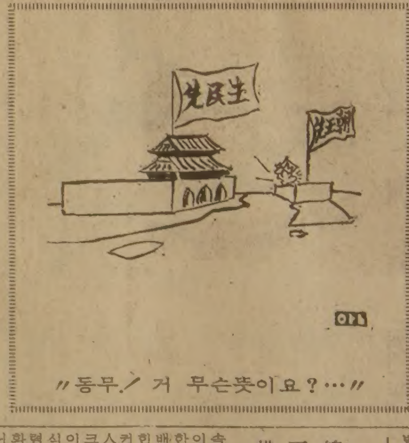
中小기업엔 金融지원
政府、對阿經協방안

정부와 경제계는 全斗煥대통령의 순방을계기로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경제협력및 기업진출을 확대하기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정부는자원 통상 건설 농수산등 각분야에대한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위해 아프리카진출기업의 자원조성방안과 실무단구성, 官民실무조사단의 파견방법과 시기등에대한 기본계획을 3일하오 청와대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또한 경제계는 이번 순방에 참가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출방안등을마련하고있다。정부와 경제계는 아프리카진출촉진을위해 ▲소규모 중소기업부문의 합작투자▲機資材 플랜트등 자본재수출확대 ▲건설및 농업개발사업참여 ▲다각적인 經協제구축등을 골자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있다。

金埈成부총리는 2일저녁 롯데호텔에서 이번 아프리카순방을 수행한 경제팀회의로 아 3일하오 청와대국무회의에 보고할 아프리카진출방안등을 협의했다。이자리에선 이번 순방국들간의 합의사항이나 약속사항의 구체적인실천계획과 아프리카진출에 따른 제도적인 지원방안등이제시됐으며 기업진출의 경우대기업은 기업자율에 맡기고중소기업및 서비스분야의 진출은 정부가 금융지원등으로뒷

社会漫評



"동무./ 거 무슨뜻이요?…"

社告

作家 尹興吉의「歪曲列島 縱橫記」·
내가 처음본 日本

★오늘부터 연재

한국일보社는 한국과 일본 두나라 독서계를 흥미하고있는 우리의 젊은 작가 尹興吉씨(40)가 일본전역을 취재 여행하면서 현지에서 기록해 보내는 색다른 旅行記를 오늘부터 독점연재합니다。광복후에 교육을 받은「한글세대작가」인 尹씨는 그의 전작장편소설「에미」가 일본에서 출판된것을 계기로 지난달25일 渡日、현재왜곡교과서파동의 본바닥이고 배경이기도 한 日本列島를 난생 처음으로 여행중입니다。재작년「장마」를 비롯한 그의 대표작들이 일본말로 번역·소개된 이후「소설로 일본을 점령한 최초의 한국작가」라는말로 표현될만큼 커다란 평판의 대상이되어왔던 尹씨는 이번일본여행에서 그의 때묻지않은 신선한시각으로 일본의 진정한 모습을 꿰뚫어보고, 굴절되지않은 판단력으로 오늘의 일본과「왜곡」의 앞뒤를 예리하게 가려줄것으로 기대됩니다。일본에 대등하게 맞서고、일본을 넘어서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는 점에서、尹씨가 현지추재로 엮는「歪曲列島縱橫記」는 우리에게 많은것을 시사해줄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글世代가 파헤칠「銳利한視覺」에 기대

◇作家 尹興吉=▲42년 全北 井邑 출생▲6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공모에「회색면류관의 계절」로 당선 데뷔。이후「鷄肋」「黃昏의 집」「하루는 이런 일이」등의 단편50여편과 문제작「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默示의 바다」등 중·장편소설발표。79년 중편「장마」가 日本에서 번역·출판돼 日本 매스컴과 文壇의 시선을 모았다。최근 日本 新潮社에의해 1천6백장 길이의 장편소설「에미」출판。

한국일보社

有事時 태평양1천海里 海路방위
美·日 공동研究 합의
美의 한국防衛계획과도 함께

【東京=宋孝彬특파원】미국과 일본은 1일 西太平洋에서의 有事時 이 지역의 海上수송로 방위문제를 공동연구키로 합의했다。호놀룰루에서 이날 폐막된 사흘간의 양국안보협의회 최종회의에서 美國측 대표인 리처드·L·아미티지 국방성부차관보가 日本측에 해상수송로 방위범위를 1천해리까지 넓히도록요구하고 일본측 대표인 요시노·미노루 政務담당 방위청차관이 이에 대해 해상수송로 방위문제를 공동연구하자고 수정제의、합의에 도달했다。

요시노차관은 회의가 끝난뒤 기자회견에서 공동연구가 日本의 방위강화를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1천해리 해상수송로(SEALANE) 방위문제는 美軍의 中東등 전세계적인 對蘇戰略構想의 일환으로 나온것일뿐만아니라 한국의 방위계획과도 직접적인 連動작용을 하고있음이 2일 폐막된 하와이 美日안보실무협의회에서 드러났다고 3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本社來訪

▲白在鎬씨(韓國獨立有功者協會事務總長)▲李容相씨(同理事)關東大震災紀念行事終了人事次

波 루빈市서 勞組示威
保安隊·젊은층 衝突

【바르샤바AP·UPI=聯合】자유노조탄생 2주년을 기념하기위한 폴란드노조원들의 對정부항의시위 3일째인 2일 루빈시에서 젊은층과 보안대가 2시간이상 충돌했다。

한편 관영 PAP통신과지역신문들은 노동자들의 시위가 폴란드전역에 걸쳐 인구 3만이상인 30개도시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地平線

얼마전 레이건대통령은 CBS·TV의 앵커맨 댄·래더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나는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고 어떤 면에서든 내정책을 변경한 것도 없다。우리는 계속해서 繁榮을 무장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래더씨는 한 1년전까지 미국을 지배한 열사람중의 하나로 꼽힌 월터·크론카이트씨의 앵커맨자리를 이어받은 放送人이다。▼民心이 言論에 크게 영향받고、대통령당선이 民心에 좌우되는 미국식 민주주의사회서도 대통령이 TV의 앵커맨에게 전화거는일은 결코 흔한것이 아니다。白堊館대변인이나 보좌관들이 대신 전화를 걸어 보도내용에 대한 대통령의 불만이나 생각을 전하게마련이다。그런데도 대통령이 TV앵커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미국言論의 主人公이 TV放送人이란는것을 서슴없이 말해준다。▼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앵커맨은 대화 내용을 CBS·TV시청자들에 그대로 밝혔다。『대통령은 CBS의 [illegible]문제보도에 화가난것처럼 보였다。…대통령의 태도는 정중했다。그의생각을 잘 말해주었으나 언성은 높이지 않았다。대통령은 다음에도 내게 전화하는것을 주저하지않기를 바란다』레이건 대통령은 CBS보도에 화가나서 전화했지만 그결과는 아마도 댄·래더씨의 저녁7시뉴스쇼 인기를 상당히 높여주었을것이다。▼이 저녁7시 뉴스쇼의 인기와 위력은 대단하다。30분간 계속되는 뉴스쇼가어떤사유로든 뒤로 밀쳐지지않는다。지난5년동안에 저녁7시뉴스시간변경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한때 레이건 대통령이 기자회견중 사실을 잘못말하며 곧잘 말을 더듬거린다고 TV들이 꼬집자 白堊館이 하오2시나 4시에하던 기자회견 시간을 저녁8시로 바꾼일이 있다。기자회견 내용을 이러쿵 저러쿵할 TV의 저녁7시뉴스시간을 피하기위해서였다。미국TV위력을 잘 말해주는 토막얘기다。▼3일은 열아홉번째로 맞이하는「放送의 날」이다。『훌륭한 放送人이 만든 좋은 放送은 훌륭한 국민성을 만듭니다…』라고 李元洪 방송협회회장은「放送의 날」행사에서 말했다。放送의 위력을 잘 표현했다。우리放送은 지난10여년동안에 量的擴張면에서는 비약적발전을 이룩해왔다。우리도 先進國못지않게 電波시대로 접어 들었다。하나 그만큼 質的充足도 되었는지、한번쯤 짚고넘을 대목이다。인쇄매체의 오도는 국민학교이상의 독자를 오도할수있으나 TV는 그하생과 어린애들까지도 오도할수 있는「威力」을 갖고있다。放送人들이 깊이 생각해보아야할 과제가 아닐까。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416)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한인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

WALK-A-THON (보행마라톤)

불과 10여년 이민역사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크게 성장한 한인사회는 "우리 부모는 우리가 모신다"는 전통적인 우리의 미덕을 이 사회에 보여주는 과업에 착수할 때를 맞았읍니다.

현재 토론토에는 2천명에 달하는 노인분들이 있고 이중 상당수가 여러 너싱홈(Nursing Home)에서 음식과 언어에 고통을 당하고 외로움에 시달리며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몇년후에는 이런곳에서 여생을 보낼 분들이 또 얼마나 많겠읍니까? 이같은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한인전용 양로원 건립을 계획하고 모금을 위해 보행 마라톤(Walk-A-Thon)을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하시고 도와주시면 큰 도움 되겠읍니다.

▲때: 1982년 10월2일(토요일) 아침9시 30분
▲곳: 써니부룩 공원 축구장(Eglinton×Leslie St.)
▲참가신청 배부처: (1)양로원 건립 위원회
나상선 851-5735, 송인문 881-5590, 이학현 463-6334, 최상수 656-0867
(2)한인 YMCA 536-1166(Mr. Kim) (3)한국일보사 533-2361
(4)민중신문 537-3473 (5)코리언저널 757-8000

대회고문: 이규현 주 캐나다 한국대사 이상훈 토론토 총영사
HON. L. GROSSMAN 온타리오주 보건부장관.
HON. F. DREA 온타리오주 사회부장관
대 회 장: 박인순 토론토 한인회장
진행위원장: 천중환 한인 양로원 건립 위원장
진행위원 (무순): 김창열 차선겸 유영갑(R)송인문 조덕남 최동주 나상선 강준남 한승권 이학현 유영갑 박경택 김명규 이병권 나영삼 유영린 심태섭 송남성 신영식 최상수 김인환 장연타 김이열
후원단체 (무순): 토론토총영사관 · 한인회 · 한국노년회 · 캐나다한국외환은행 · 온타리오 실업인협회 · 재캐나다대한 체육회 · 코리아타운 번영회 · 동우회 · 한인YMCA 와이즈맨클럽 · 라이온즈클럽 · 간호협회 · 한인교역자회 · 무역인협회 · 한인골프협회 · 벡커경영인협회 · 맥스경영인협회 · 한일은행 · 한인신용조합 · 대한부인회 · 조흥은행 · 한국일보 · 민중신문 · 코리안저널

한인양로원 건립추진위원 위원장 천중환
Korean Senior Citizens Home Development Society
6042 Paddle Road, Mississauga, Ontario Phone : (416)826-6664

내가 처음본 日本

한글세대作家 尹興吉의 「歪曲列島」縱橫記 <1>

「도둑질」이란 잘못에 「어리석음」까지 추가하다니…

내 친구인 한 일본인 작가는 나더러 제국주의자가 되어 제발 일본 열도를 침략하라고 입버릇처럼 꼬신다。요즘 한참 시끄러운 일본의 교과서식 표현을 빌자면 침략이 아닌〈진출〉의 뜻이며, 물론 총칼 아닌 갈등의 무기를 앞세운 문화적 제국주의자로서 진출하라는 이야기다。솔깃한 이야기이긴 하나 매우 어려운 일이며, 또한 그것은 나 한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일도 아닌줄 안다。

나로서는 이번이 난생 처음의 일본 방문이다。일본 국제교류기금의 단기초청 혜택을 받아 보름간의일정이 잡힌 데다가 일본 新潮社에의해 출간된 전작 장편「에미」에 따르는 몇가지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처음부터 강행군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빠듯한 여행이다。

25일 점심 무렵에 일본땅에 첫발을 디디면서 느낀 감상은 우선 거리감이었다。한국에서 일본까지의 시간보다 오히려 같은 일본 속의 나리따공항에서 도오꾜시내까지의 시간이 더 걸리는 걸 보고 두 나라 사이를 지호지간이란 말로 표현하고 싶은 심정은 비단 나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리라。그토록 가까운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심정적으로 너무 멀리 동떨어져 지내는 현실에 관해 나는 맨 먼저 유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더위로 엄습해 오는 일본의 여름은 나에게 무척 무자비하게 느껴졌다。아무리 햇볕이 쨍쨍해도 그늘 속에만 들면 시원해지는 한국의 날씨와는 달리 온몸에 끈적끈적땀을 짜내는 일본의 습기 많은 날씨로부터 내가 도망칠 데라곤 오직 에어컨뿐이었다。

차를 타고 고가차도 양쪽에 높이 세워진, 뭐랄까, 방음벽의 만리장성을 지나도심지로 향하면서 나는 잘사는 이웃의 수도를 서구의 어느 곳으로 자주 착각할만큼 그 규모와 설비에 눈을 크게떴다。그리고 차창 너머로 야스꾸니神社를 비롯한 여러 곳의 신사를 구경하면서 정문의 구조가 우리하고 똑같은 점에흥미를 느꼈다。우리 시골의 사당이나 왕릉 앞에 세워진 홍살문 바로 그것인데, 이름마저 비슷해서 아까도리이라고 부른단다。

방문 이틀째인 26일 오후에 신조사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한국작가로서 공동회견은 나에게 처음 겪는 행사일 뿐만 아니라 일본문단에서도 유례가 드물기때문에 다소 어색한 기분이었다。더구나 때가 때인 만큼 교과서문제를 비롯한 정치적인 질문이 나올것에 대비하여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일간지와 주간지, 그리고 문예지에서 나온 16명의 기자들은 學藝담당이라서 그런지 정치색을 띤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그들의 질문은 작품「에미」를 중심으로 한 문학세계와 그 주변으로 국한되었다。질문에 따라 나는 한·일양국간의 문학사에서 최초로 시도된 전작계약 출판의 의의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나 경제의 힘으로 풀수 없는 양국간의 매듭을 인간을 다루는 문학작품의 직접교류를 통하여 풀수 있게 되기 바란다는 뜻을 설명했다。

기자들은 제목「에미」와 그 에미를 둘러싼 한국의 가족구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하필이면 왜 어머니의 사투리를 제목으로 고집했는가。윤흥길문학에서 가족구조의 파괴와 분단상황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등등。

나는 작품「에미」를 통하여 내가 그리고자한 한국의 어머니상이 단순히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여자라는 사전적 의미를 초월하여 불행까지도 밑거름으로 삼아서 꽃과 열매를 맺게하는 대지의 흙과도 같은 생명력의 근원이라는 사실, 그래서 본능적이며 토속적인 큰 의미의 어머니한테는 표준말이 어울리지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또한 핏줄의 순수성과 유대감을 중시하는 한국에서 가정파괴는 가장 큰 비극이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것이 곧바로 국토분단이며 단일민족의 이산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우스꽝스런 漫畵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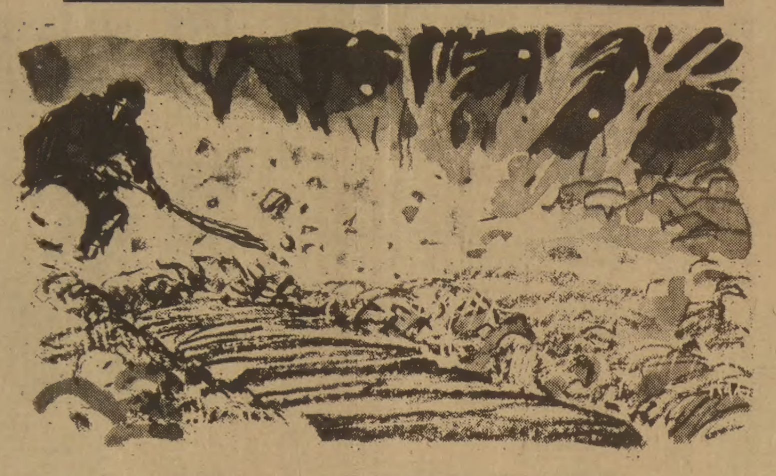


그림 鄭駿溶

文化大國으로 成長못하는限 日本의 富는 意味 없는것

공동회견후에 따로 아사히신문의 이시까와(石川) 기자하고 단독회견을 가졌다。한·일 문학의 특성에 관해 이야기하던 끝에 그한테서 교과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비로소 나왔다。나는 비유적인 설명을 양해해달라고 말한다음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내가 어렸을때 본 만화가운데 이런것이 있다。어떤 도둑이 눈 내리는 밤에 이웃마을로 도둑질을 나갔다。한보따리 턴 다음 집에 돌아와서 보니 자기발자국이 눈길위에 선명히 찍혀있었다。한바탕의 고민끝에 도둑은 묘책을 짜내어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발자국을 쓸어 없애기 시작했다。말끔히 청소를 마치고나니 안심이 되어 도둑은 룰룰 잠들수가 있었다。그러나 도둑의 집과 도둑맞은 집사이에는 발자국보다도 훨씬 더 선명한 빗자루질의 흔적이 눈길위에 옮겨있을수 없는 증거로 남아있었다。

결과적으로 그 도둑은 도둑질이란 잘못 위에 어리석음이라는 또 하나의 잘못을 추가한 셈이다。매스컴을 통하여 일본의 교과서 문제를 접했을때 내 뇌리에 맨처음 떠오른 것은 다름아닌 그 만화였다。

일제하에서 우리가 겪은 아픈 체험은 사실 치욕의 역사이다。그들속에 묻힌 상처를 자꾸만 밝은 마당으로 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자랑스러울 거라곤 하나도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한국인들이 일본의 교과서 때문에 분격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진실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자기네 후손들을 자부심 높고 애국심 강한 민족으로 키우려는국내사정이 이번 교과서파동을 발생케 했다면, 일본의 정치인들은 남의 나라에도 후손들이 자라고 있고 그들 역시 자부심높은 민족이 되어 그 나라의 주역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있다。가해자의 후손보다 피해자의 후손은 언제나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역경의 인생을 신음소리와 함께 출발하게 마련이다。

어떤 경우에도 진실보다 목적성이 우선시될 수는 없다。결코 자랑스럽지도 않은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사실대로 가르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국익에 앞서 진실을 지키기 위함이다。

나는 그릇된 역사를 배운 일본의 젊은이들이 장차 세계 속의 시골뜨기가 될 경우에 닥칠 가공할결과를 우려한다。그것은 우선 일본자신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선린관계를 지속해야 할 이웃한데도 손실을 입히기 십상이다。정치강국,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이 장차 문화대국으로 한 차원 더 높이 성장하지 못하는 한 일본이 누리는 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메아리

모를 稅

한 사무실을 두사람이 같이 쓴다。오랫동안 같은 일에 함께 종사해온 사이이므로, 두사람의 생각은 비슷한 데가 많다。

그중의 하나가 세금에 관한 것이다。월급날의 두 사람은, 세금이란 내면 낼수록 앉수가 없는것이라는데 동의한다。그 바탕에는 만만찮은불만이 깔려있다。

한사람의 불만은 월급봉투에 적혀 나오는 세액이 다른 한 사람보다 월등히 많은데서 더 해진다。

그는 독신이기 때문에 人的공제 혜택을 못받는다。그의 불만은, 월 50만원 봉급생활자의 경우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월50만원 봉급생활자가 최고5명의人的공제를 받을때의 세액은 1만4천43원이다。그러나 이사람이 부양가족없는 독신일때의 세액은 2만9천9백50원。이렇게 남보다 갑절넘는 세금을 내면서 불만이 없다면 이상하다。

게다가 월급의 3·1%를 원천징수하는 의료보험이 있다。부양가족이 5인이라면 당연히 受惠範도 그만큼 클 것이지만, 독신인 경우는 보험료만 내고 혜택 볼 것이 별로 없다。실제로 그는 의료보험 카드를 들고 병원을 가 본일이 없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분개한다。가족계획을 말하는 나라에서, 독신자를 상주지는 못할 망정, 세금을 더내라니 말이나 되는가。그게 독신稅―총각稅아니고 무엇인가。受惠者의 머릿수도 따지지 않고 의료보험료를 일률징수하니,나같은 경우는 이것이 바로 건강稅아닌가。

그 말을 들으며, 다른 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인다。하지만 그의불만은 조금 다르다。

그는 부양가족이 있지만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한다。이른바 맞벌이부부이기 때문이다。그의 불만을, 역시 월50만원봉급생활자를 가정하여 설명하면, 같은 4인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그는 남보다 3천7백21원의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맞벌이는 주부가집안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온 가족의 희생과, 주부를 대신할 가정부등의 비용을 따로 부담해야만 가능하다。그에 대한 배려 없이, 배우자 공제를못받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맞벌이稅를 물리는 꼴이나 같다。

더구나, 지금처럼 의료보험료를 부부양쪽에서 모두 공제하는것은 정말 이상하다。식구들이 2중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2중으로 보험료를 물고 있으니, 한쪽 봉투의 보험료 공제는 건강稅나 다름없다。

이상의 얘기는 말을하자고 지어낸 콩트가 아니요, 이「메아리」를 쓰는 한국일보 편집위원실의 속사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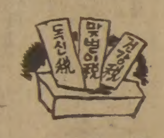
두 사람의 불만이 세금전부가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나, 여기 사사로운 불만을 적는까닭은,그 것이 몇몇뿐한 경우에 국한되지 않는 일면을 지니기때문이다。두사람의 불만을 뒤집어보면, 우리나라 여성근로자가 겪고 있는 부당한처우가 부각된다고 생각하는것이다。

먼저 여성근로자의 상당수가 미혼이다。이들은 총각稅아닌 처녀稅를낸다。세법을 고치면서 人的공제를 늘린는 정부의 생색은 이들과는 전혀 무관하다。

결혼한 여성근로자의 거의 모두는 맞벌이 주부다。이들이 맞벌이稅와 건강稅를 물고 있음은 위에 본대로다。

결국 독신稅, 맞벌이稅, 건강稅등 이름모를 세금의 피해를 거의 모든 여성근로자가 받고있다。1천여원을 넘었다는 의료보험의 잉여금등 상당부분은 이들이낸 건강稅일터이다。이 점를 여성단체들이 들고 나오지 않는 까닭을 알수가 없다。

9월정기 국회가 열리면, 의당 정부는 세법을 포함한 여러법률안을 낸다。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일지는 아직 모르나,그때가서는 여성근로자의 처지를 대변하는 立法로비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金昌悅 <編輯委員>

國際焦點

「1천마일 海上방위」…美·日 공동연구合意

韓半島안보에 큰意義

極東유사시 3개해협 봉쇄
한국防衛에 後方지원 역할

日、參戰우려 "石油수송路만 보호" 주장도

【東京=宋孝彬특파원】 호놀룰루에서열린 美·日안보실무자협의회에서 1천마일 해상수송로의 일본방위문제를 美·日양국이 연구키로 합의한 것은 韓半島의안보에 큰 의의가 있다。

이런구상은 사실 극동유사시에 일본이 소야, 쓰가루, 쓰시마등 3해협을 봉쇄하고 일본열도를 중심으로한 1천마일해상을 방위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이 미국의 한국방위에 후방지원역할을 맡는걸 의미한다。

그러나 호놀룰루14차美·日안보실무자회의에서 1천마일 해상방위에대한 개념과 범위에대해 양국간에 현격한 이견대립을 드러냈다。

미국측은 일본열도를 중심으로 1천마일해상의 半徑을 전부 감당해줄것을 요청하고 있는반면, 일본은 괌島以西와 필리핀 北東을 연결하는 中東석유수송항로만을 지킬 것을 주장했다。

또 미국측은 극동유사시에 소련함대의 태평양진출을 막기위해 3해협의 봉쇄를 내세운데 반해 일본측은 직접적인 일본영토의 침해위협이 없는한 전쟁에 휘말리는 해협의 봉쇄는 일본헌법상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스즈끼수상이 작년5월 워싱턴을 방문, 美·日정상회담에서 약속한 1천마일해상의 방위개념에 관해 美·日간에 이렇듯 현격한 견해차이를 보이고있어 결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에 검토를 맡겼다。

미국은 1천마일해상방위의 구체적개념으로 ▲미군의 中東작전과함께 세계적인 對蘇전략개념의 하나이며,▲자유우방의 일원인 일본이 책임져야할 1차적인 의무로규정하고있다。

특히 1천마일해상방위가 한국방위와 직접연관이있으며 한국해군은 북한에 대항키위한 전력이기 때문에 일본의 해상방위는 자유진영전체를 위해 중요하다는점을역설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평화헌법상 집단방위의 성격이 짙은 해상방위를 위한 개념확대에는 찬성할수 없다고 주장하고있어 일본의 해상방위실현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은해상방위가 헌법위반임을 들어 앞으로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공세를 펼 계획이다。

미국은 극동 소련군의 장거리전략폭격기 백파이어가 90機이상 배치되고 있어 일본의 對空網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미국의 웨스트국방차관보와 롱 태평양사령관은 일본이 기대하고있는 1천마일 해상방위에관한 설명에서 미국은 소련의 극동군사력의 증강과 中東에대한 군사압력에 대응키 위해 제7함대를 中東으로 이동배치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감안해서 일본은 태평양연안의 힘의 공백을 메우기위해 1천마일 해상방위를 위한 對空對潛능력의 강화가 절대로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일본더러 83년부터 5년동안에 완수할 일본의 자위력증강5개년계획도 조기완수,소련함대의 태평양진출을 막을수있는 일본해상자위대의증강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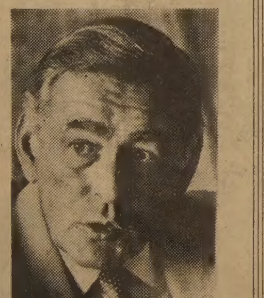
일본은 특히 교과서문제를 계기로 아시아隣國으로부터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지 않느냐는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해상방위를위한 급속한 자위력증강에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1천마일해상방위는 한반도안보와 직결되며 앞으로협의하게될 한반도유사시에대한구체적인대책이주목된다。

5分間 인터뷰

美 NBCTV 社長 로버트·멀할랜드氏

50년대 후반 東豆川 통신兵
88올림픽 「새한국」 선뵐好機



미국3대 방송중 하나인NBC의 로버트·멀할랜드사장(46)이 서울에 와있다。3일 정오 조금지나 숙소인 신라호텔에서 마주 대한 그는 25년전의 한국을 회상하며 이번 한국방문에 남다른 감회에 젖어있노라고 했다。

멀할랜드사장은 동란의 상처가 군데군데 남아있던 50년대후반 東豆川주둔 美7사단에서 무명의 통신병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너무나 놀라보게 변했어요。그때 묵었던 반도호텔은 사라지고 서울의 곳곳에는현대식호텔과 고층건물이 즐비하니 말예요。정들었던 東豆川에 가보니 옛날모습은 간데없고 깨끗한 집들이 들어선 입구6만5천의 도시로탈바꿈했더군요』라고 멀할랜드사장은 연신 놀라운 표정이다。

NBC TV사장에 취임한지 1년이 됐다는멀할랜드사장은『우리는 88년 서울올림픽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읍니다。시기적으로 좀 이른감이 있으나 서울올림픽 중계방송을 위한 현지답사인 셈이지요。체육부 체신부 한국올림픽위원회 KBS TV등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중계권문제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졌지요』라고 이번 방한목적을 털어놨다。

역시 NBC TV가 스포츠중계방송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제1이라는 것이 실감나게 느껴졌다。

『서울올림픽위원회에 가보니 올림픽준비가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더군요。메인스타디움등 각종경기시설이 모스크바올림픽이나 로스앤젤레스올림픽보다 훨씬 나은것 같습니다。서울올림픽은 발전된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될 것입니다』라고 멀할랜드사장은 말했다。

오늘이 한국의「방송의날」이라는 말에『발전하는 나라에서 방송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한국은 公營방송체제를 추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선진국이나 개도국 어느나라건 방송의公共的인 기능이 확대되고있는 추세에 있지요。영국의 BBC방송이 공영방송의 장점을 잘살리고 있는 대표적인 예지요。

정부당국은 방송을 통제하기보다는 정보전달이 신속하고 정확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한다』고방송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최근 올림픽이 정치문제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는데 대해『모스크바올림픽이 아프가니스탄침공을 책임을 물어 서방국가들에의해 보이코트당했지요。

그러나 서울올림픽은 중공이 이미 참가를 시사했고 소련도 착가할 것이 틀림없어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서울올림픽에 기대를 크게 걸고있었다。

인터뷰하는 동안 우리에게도 낯익은 카터행정부당시의 국무성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였던 홀부르크씨가 잠시 얼굴을 나타냈다。홀부르크씨는 현재 NBC TV의 고문역으로 멀할랜드사장과 같이 서울에 온것。

헌칠한키에 미남인 멀할랜드사장은『한국이 변했다』는 말을 여러번 되풀이했다。

【崔海雲기자】

◇日 탄환열차 實驗성공 日本國鐵(JNR)의 엔지니어들이 2일 JNR의 테스트센터에서 새로 개발한 시속2백62㎞의 탄환열차에 직접 試乘, 성능실험에 성공한뒤 차안에서 손을 흔들고있다。【宮崎(日本) 3日UPI=聯】

海外토픽

日女大生 영양실조死亡
21세哲學徒, 반년간 天然食생활

철학을 전공하는 21세의 日本여대생이 지난 반년간 당근·우엉·고구마·농약을 쓰지않고 재배한 야채등 천연식품만을 먹고 살아오다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니이가따대학의 철학과졸업반인 다까하시·교꼬양은 고교재학시 탁구훈련때문에 생긴 손목과 팔의 통증을고치기위해 천연식 생활을 시작했으나 반년전부터는 현미밥 반공기와 채소, 그리고가끔 생선을 곁들이고 저녁에는 국수한그릇씩만 먹는 철저한 천연식 생활을 했다는 것。

다까하시양의 하루 영양섭취량은 20세여성에게 필요한 단백질60g을 포함한 약2천 칼로리의 정부기준량의 절반에도 미달했다고。【東京=AP】

賣淫·간통刑罰완화
★이란, 敎化로 정신개조

이란은 회교율법에따라 매음행위·간통·절도·음주·성도착행위등에 내리던 가혹한 형벌을 완화, 교화에 의한 시정방법을 채택했다고。

정신적으로 마비된 사람들을 개조하기 위해 설치된 이란의 죄악행위단속반책임자 모르타자·후세이니는 지금까지 이란에서는 간통·절도·음주·성도착행위에 대해서 손목절단과 사형이나 공중앞에서 뭇매를 가하는 가혹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 관례였다고。【키프로스=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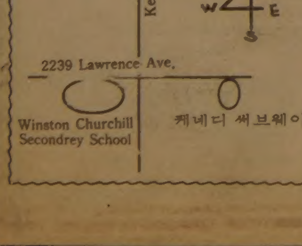
영화의 밤

"꼭 보십시요!" "감동적인 이 영화를"

1. 대종상을 받은
"사랑의 뿌리"
일시 : 1982년 9월10일(금) 저녁 7시
❶씨나리오 최우수상
❷최우수 작품상
⊙주연 : 장동휘, 윤일봉, 도금봉 외.

일제 말엽 소록도의 비극과 김정복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순교이야기로…
해방과 6.25를 거쳐 생이별했던 주인공 박학구씨의 두 자녀중 한 아들이 조련계의 임무를 띠고… 눈물없이는 차마 볼수 없는 이 영화!

2. 기독교 십자성선교회작품
"사랑의 원자탄"
일시 : 1982년 9월11일(토) 저녁 7시
◎감독 : 강대진
◎주연 : 이신재, 송승환, 박소미, 이형준
활석 손양원 목사 순교실화



장 소 : Winston Churchill Secondary School
2239 Lawrence E. 입장료 : 1불(장내 정리비)

● 한국에서 들여온 차에 붙이는 캐나다기와 태극기 스티카를 무료로 배부함.

주 최 : 승공문화협회 협 찬 : 교역자협의회, 토론토지부 장로협회

"黨內 極左분자 肅淸"

中共、12全대회 政治재판再開 선언

◇中共수상 趙紫陽이 1일 개막된 中共黨 全國代表大會(10全大會)의휴식시간을 이용, 黨부주석 陳雲과 한담하고 있는 모습이다。(이사진은 中共관영 新華社통신이 배포한 사진이다) 【北京2日AP電送=聯合】

【北京 AP=聯合】중공은 제12차 全國대표대회(12全大會) 개막과 함께 정치재판을 재개하는 한편 黨內극좌분자에 대한 철저한 숙청을 단행할것임을 선언했다.

외교분석가들은 지난 수년간 극좌세력의 공격목표였던 최고실력자 鄧小平이 오랫동안 벼러온 극좌『4人幇』추종세력 제거작업을 실행에옮길만큼 강력해진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黨기관지 인민일보는 12全대회가 개막된 1일 평가절하된 故毛澤東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다면서 華國鋒당부주석을 간접 비판했다.

英字日刊 차이나·데일리는 이보다 하루앞서 中共黨이 대회개막직후『옳지못한 무방식』에 일대수술을 단행할것이라고 보도했다.

외교소식통들은 새로 적용될 보다 엄격한 기초 교육기준, 전문능력과 정치적 신뢰성등의 요건에따라 3천9백만 당원전체에 대한 재등록을 실시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黨지도부는 당원중 상당수가 자격기준에 미달이라는 사실을 미리알고 재등록절차를 밟지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現당원의 약 절반이 지금 비판받고 있는 1966~76년의『文化革命』기간중 입당했으며 이들중 대다수가 맹목적 정치熱만을 지닌 무식하고 무력한자들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바로 鄧의 현대화계획에 장애가 되는 상당히 세력이 큰 중간계층을 대표하고 있다.

鄧은 지난2년동안 이들에 대한 평화적이고 조용한 숙청작업을 벌이려고 시도했으나 저항을 받아 번번이 좌절됐었다.

외국언저버들은 그러나 鄧이 반대세력을 사상적으로 회유하는등 고도의 정치적술수에 의해 反鄧세력의 기반을 무너뜨릴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華國鋒의 毛추종비판

黨員재등록…4人幇세력 除去할듯

12全大 主席壇에 韓人동포도 1명

【서울=聯合】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가운데 1일北京서 개막된 中國공산당제12차전국대표대회(12全大會) 主席壇에 中共東北部의 韓人자치주 대표로 韓人동포1명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北京방송에 의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北京방송이 31일 12全大會主席壇 2백32명의 명단을 보도하는가운데 동포인 趙南지氏를 朝鮮族으로 소개함으로써 밝혀졌는데 趙氏의 신원에 대해서는 일체 알려진바없다.

한국일보

波시위…4천명 被逮

【바르샤바AP·UPI=聯合】폴란드 자유노조창설2주년을 맞아 지난달31일 전국13개도시에서 벌어진 계엄령선포이후 최대규모의 가두항의시위에서 3명이 사망하고 4천50명이 당국에 체포되었다고 폴란드관리들이 1일 밝혔다.

폴란드관리들은 남부 루빈에서 시위에참가한 자유노조 지지자2명이 경찰의 발포로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폴란드 정부대변인은 자유노조발상지인 그다니스크에서도 22세가량의 청년이 머리에 부상을입고 숨져있는것이 발견돼 정확한 死因을 조사중이라고 발했다.

또한 31일의 전국적인 항의시위에서 민간인 3명과 경찰관1백48명이 다친것으로 관영보도들은 전하고있으며 당국은 시위에 참가한인원을 6만5천~7만5천명으로 보고있다.

PLO 撤收완료

시리아軍포함 萬3千명

【베이루트路透=聯合】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게릴라 제14진이 1일낮12시8분(한국시간 저녁7시8분) 마지막으로 베이루트를 떠남으로써 PLO전사들의 레바논철수가 예상보다 3일앞서 완료됐다.

레바논 정부는 PLO의마지막철수부대인 제14진 게릴라 6백33명이 45명의 여성과 33명의 어린이등 가족과함께 美해병과 레바논 정부군이 지켜보는가운데 그리스선박「지중해의 태양」호에 승선, 시리아의 타르투스港으로 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PLO게릴라 1만여명과 시리아군 약 2천명등 모두 1만3천명의 철수가 예정보다 3일 앞당겨 완료됐으며 지난12년간에걸쳐 레바논에서『국가안의국가』지위를 누려온 PLO의 政治力에 종막을 고했다.

◇전남莞島인근 多島海에대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自然實態綜合調査團일행이 완도에 상륙하고있다。

眞相조사

「악마의 포식」규탄

【제네바路透=聯合】유엔인권위원회는 31일 2차대전중 일본군이 만주에서 실시한 인간생체실험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유엔인권위 영국대표 벤자민·위테이커씨는 일본관동군의 생체실험을 주제로 한 일본소설가 모리무라·세이이찌씨의 「악마의 포식」을 인용, 일본군의 생체실험은 중국·소련·미국포로들에게 치명적인 세균주사를 강제로 놓은 학살행위로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美 中東평화안」拒否

"캠프데이비드協定 違背"

"安保등 重大위협조장 어떠한協商도 않겠다"

◇左翼민병대원 구타하려는 레바논兵士 한 레바논병사가 美製M16소총으로 좌익민병대원ⓐ을 때리려하자 레바논 군장교가 말리고있다。2일 레바논군이 베이루트市의 녹색선을 따라 진지를 구축하려하자 이지역 민병대가 반발, 싸움이 일어났었다。【베이루트2일UPI電送=聯合】

【예루살렘AP·UPI=聯合】이스라엘 정부는 레이건 美대통령의 새로운 中東평화계획이 6개항에 걸쳐 캠프데이비드협정을 위배하고있기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스라엘정부는 이날 3시간동안의 긴급각의가 끝난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中東평화안은 ▲예루살렘거주 아랍인들의 지위 ▲요르단江西岸에서의 치안 ▲요르단江西岸에서의 이스라엘정착촌건설 ▲이스라엘점령지에서의「완전한 自治」실현의 개념 ▲요르단江西岸과 요르단간의 특별한 유대 ▲요르단강서안및 가자지구의 主權문제등 6개문제에 걸쳐 캠프데이비드협정의 합의사항들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정부는 長文의 발표문을 통해 미국정부의 최신제의는『이스라엘과 그들의 안전및 장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조장할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그와같은 판단위에서 협상에 일체 불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비드·레비부수상이 발표한 이 성명은 레이건 대통령의 새로운 제의가 우선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요르단강서안의 自治委선거에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캠프데이비드협정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불가분의 수도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마옐·베긴 密會

이스라엘放送 보도

【텔아비브AP=聯合】베긴이스라엘수상과 게마옐 레바논 대통령당선자는 양국의 장래관계와 이스라엘의 레바논주둔 문제를 협의하기위해 1일밤 비밀회담을 가졌다고 이스라엘 라디오방송이 3일 보도했다.

이방송은 회담이 어디에서 열렸는지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베긴수상이 이스라엘과 레바논경계지대의 나하리야에서 휴가중이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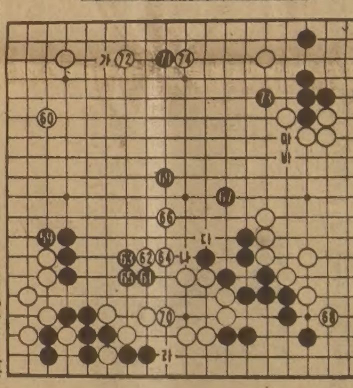
이스라엘 反對불구 새平和案 强力추진

【워싱턴UPI=聯合】슐츠美국무장관은 2일 미국은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중동평화안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14기 名人戰

第1局 第7譜 59~74 (각4시간·덤4집반)

白(7段) 盧永夏
黑(6段) 洪鍾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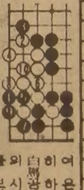


조급한 白黑공격

黑59로 두번째 막고 간접적으로 하변 白대마를 노린다. 당장은 직접 한 공격수단이 없기때문에 일단 보류한것이다. 그리고 이모양에서는 장차 黑이 살고도와감이 白귀를 피해하는 「끝내기」도 보고있다.

盧7단은 하변 白이 「위험하게」하면서도 차상귀를 白60으로 굳혀놓았다. 아직도 미생마인 白대마는 상당한 시달림을 받을것이 뻔하지만 그런 내로 白60은 놓칠수 없는 곳이다.

이때 黑61, 洪6단은 계획을 바꿔 직접공격을 개시했다. 그러나 국후에서 지적되었듯이 역시 조급한 공격이었다. 『黑61은 「가」로 서하하여 놓은 이후 한번 白대마공격 시기를 보아야했다. 黑63은 그냥 65로 놓아 白 「나」면 黑「다」한다는 식으로 추격하는 것이 좋았다고한다. 실전은 결국 黑65가 필요해서 白66으로 大馬에 진출하여 한시름 놓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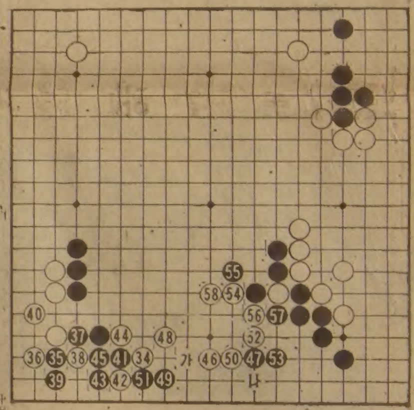


黑67은 白에게 맞길수없는 곳이며 白68은 권장할 만한 곳. 黑69가 온이상 白도 70으로 가일수하게된다. 盧7단은 『할수없이』하고 말았다고 했으나 실은 단방에 白「라」로 一점을 빼내는 수를 보며 제자리 끝내기까지 겸했다.

黑71, 白72때 黑73이 와야하는 흐름이었다. 『73은 黑「바」로 해어 白「바」면 좌로 흐름 뻗어야 살 백黑진이 확정되고 따라서 白74와같은 강수도 당하지 않았다』【一凡】

第1局 第6譜 34~58 (각4시간·덤5집반)

白(7段) 盧永夏
黑(6段) 洪鍾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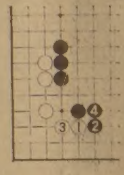
白34가 임기응변의 호착임은 앞譜에서 지적했듯이 黑45자리에 붙이는 정석이면 참고도처럼되어 하변黑大家가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白38, 이것이 白34에 이어진 제2의 임기응변이다. 서둘러 白40부터 두면 黑「가」의 협공으로 白34한점이 헤어나기 어렵게된다.

다음 白42, 44가 고심을한수법. 얼핏보기에는 白38을 잃은자리에서 죽게하여 대악수다. 그러나 실은 白46을 두기위한 「捨小取大」작전으로서 이근처 盧7단은 있는재주를 다부리고 있다.

黑47. 黑도 그간에 열심히 구축한 하변대세력이 무너져서는 견딜수가없다. 따라서 근거를위협하며 좌우양쪽의세력을배경으로 공격을 가할밖에 없다.

不安한 白大馬



이리하여 黑49로 급소를 찔렀는데 盧7단인쪽 그제야 『방향착오였』하고 白48을 눈으로 가리킨다. 여기서는 어쨌건 49자리에 호구쳐야 편했다는 뜻이다. 黑51로 뚫겨 정말로 근거가없어졌다. 물론 고전이다.

다만 白52때 黑53이 좀허약해서 白54이하 58까지, 아직도 미생마인채 위기를 모면한것은 천행이랄까. 만약 黑53으로 「나」에 내려섰더라면 일은 심상치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생마. 불안은 가시지 않고있다.【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207>

미리 온 가이 ⑩

『대학생이 그렇게좋아?』

일화이는 불안의 오목이를 길러내면서 불아수웠다. 별안간 거칠어진 그의 숨소리로 그의 암팍한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목이는 그를 달래려고 했다.

『제발 그런식으로 말하지 말아. 난 자기가 배우려는게 좋고 신기해서이야』

『또 해야지 없어?』

『해주다니?』

『뭐든지 말해봐. 해달라는대로 다해줄게. 대학생 노릇도 해주고 벗거 벗거 다 해줄께』

그는 트집을 잡을 없이 키고난 마음사처럼 남매스럽게 말했다.

그는 늘 그랬었다. 다시는 술을 안마실게, 술만안마시면 우린 담바 잘 살게 될거야. 적금도 붓을수 있을걸. 적금보다는 제가 너무리하다지? 당신도 제발 하지그래, 결혼한 여자치고 제 안하는 여자 없다며. 그런 여자들중에는 남편이 갖다준 쥐꼬리만한 돈을 남편이 기절할 만큼으로 불려놓는 여자도 있다더군. 나도 그런 기적 한번 안시켜 줄래? 세기방.

그의 지어보는 마음은 저우 기쁘하는 대목에서 끝나게 마련이었다.

아기가 생겼으니 달라질 알았다. 아기가 태어나기전부터 그건 오목이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가 뱃속의생명을 견디기 어려웠음은 했어이 되자라서가 아니었다. 일화이의 자포자기가 그녀의희망을 다치는대로 짓씨고 빼앗아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자는 술속에도 일화이의 자포자기가 결코말할수 없는 곳이 있었다. 그녀는 자기속에 그런 살힘수 없는 곳이 있다는게 신기했다. 일화이에 대해 유일한 승리감조차 느꼈다. 너의 까닭 않은 유린은 결코 완벽한 선망해뇌는 빼드러니와 우지한 마음에까지를 아기는 뇌착아 숨었이다.

그녀는 그렇게 바랐었다. 그건 그녀가 인태한 복속에게 거는 최소한의 희망이었다. 그희망이 없었던들 그녀는 그 복속의 안속에 미처 버렸을 것이다.

오목이는 일화이한테 얻어맞고 아기를 잃었다. 알(卵)을 품듯이, 일화이 엄마나 유약한 얘기가, 악기쓰처럼 여린 껍질에싸인 알을 오목이는 두려워하며 소중해하며 품안에 안았다.

너는 아직 덜 태어났어. 그러니까 넌 알이야. 네가 나나도 좋을 때까지 기나고 지켜줄까. 나는 알에게 필요한게 무엇인지 알고있다. 너는 언젠가 껍질을 깨고 어날수 있을거야. 네가 희망으로 태어날때까지 희망은 있어.

그녀는 기쁨을 느꼈다. 그런 기쁨도 처음이었다.

게 아니라고 비웃어주고도싶었다.

그건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는 아기였다. 그녀는 아기가 누구를 닮았을까를 궁금해 하지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그것을 상상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 대신 아기를 빛이라고 생각했다. 아기가 빛처럼 와서 그들의 몽매를 밝혀주길 바랐다. 일화이의 심성에 드리운 짙은그늘을 내몰아 줄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는 늘 그늘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와 같이 살고나서 그녀는 한번도 그의 참모습을 바로 본적이 없었다. 아기만 태어나면, 아기는 더러운 속의 새로운 빛이되어 그의 그늘을 몰아내고 그의 참모습을 드러내줄 것이다. 그때가 오면 다시 「온두이 집」에서 본 그의 본디 모습을 보겠지. 혀바다한 얼굴과 낙관적인 희망으로 빛나는 작은눈과 믿지만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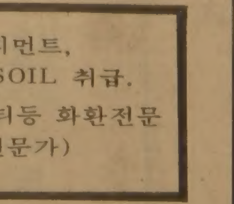
한국인 경영의 최대규모의 꽃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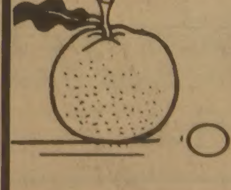
YONGE FLOWER SHOP

◎ 각종 PLANTS, 어랜지먼트, CUT FLOWER, SOIL 취급.
◎ 결혼 · 장례 · 생일 · 파티등 화환전문 (일류 FLOWER 전문가)

토론토 전지역 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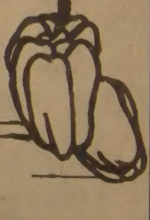
589 YONGE ST.
(ONE BLOCK NORTH OF WELLESLEY ST.)
☎ : 960－6265 MR. 김





도 매 업

○ 채소 ○ 과일 ○ 화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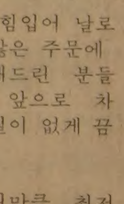
저희 도매상은 교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날로 번창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많은 주문에 미처 인원이 부족해서 제때에 배달 못해드린 분들도 있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차량및 인원을 증가해서 더욱 사업에 차질이 없게 끔 만전을 기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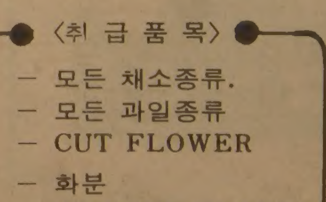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야채도매사업이니만큼 최저의 저렴한 가격(온타리오 FOOD마켓, 품목에 따라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봉사중이오니 배전의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읍니다.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PICK－UP 또는 주문, $150 이상)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 465－8167 대표 곽 덕열





「國定교과서」社長·任職員
輪轉機수입때 거액收賂

時勢보다 26만여弗 더支拂
오퍼商서 3百70만원 받아

治安本部, 장부압수…發注·구입경위 捜査

치안본부 수사대는 3일 국영기업체인 국정교과서주식회사(사장 鄭祥萬·56)가 교과서인쇄용 고속윤전기를 수입하면서 국제시세보다 26만달러(1억9천5백여만원)나 비싸게 구입하고 수입을 알선한 국내오퍼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국정교과서주식회사 사장 鄭씨와 임직원5명, 오퍼상인Y산업대표 趙모씨(41)등 관련혐의자를 구속할 방침이다.

치안본부는 이날 국정교과서주식회사 사장 鄭씨와 임직원, 오퍼상 趙씨를 소환, 관계장부일체를 제출받아 고속윤전기 발주및 구입경위와 뇌물수수과정을 집중수사했는데 조사결과 지난2월27일 계약, 4월 구입한 프랑스 리스社제품 고속윤전기는 당시 국제시세가 2백70만달러였으나 26만달러나 비싼 2백96만달러를 지불토록 했고 사장 鄭씨는 도입계약후 오퍼상으로부터 3백70만원을 뇌물로 받은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사장 鄭씨는 경찰에서 3백70만원을받은 사실은 자백했으나 사전에약속한 뇌물이 아니고 거래가끝난후 단순히 사례비조로받은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이중1백만원은 자신이쓰고 나머지2백70만원은 전무 白鍋基씨(58), 상무 李德興씨(47)·韓慶雨씨(56)감사 金俊煥씨(58) 기술개발과장 鄭載基씨(53)에게 각50만원, 기술계장 尹琅鎬씨(40)에게20만원을주었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鄭씨는 또 비싼윤전기를사들인것은 올해가 교과서개정의해로 인쇄물량이폭주해 고속윤전기의 조기구입이 시급했기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들중1대는 8월1일, 나머지1대는 9월1일자로 설치완료, 가동중이다.

경찰은 윤전기도입에 따른 초과지불액이 26만달러나 된다는점에 비추어 국정교과서측이 오퍼상으로부터받은 뇌물이 더 많지않은가 보고 추궁중이며 당시의정확한 국제시세를 확인하기위해 프랑스등에 조회를 하고있다.

자본금80억…政府株88·7%

국정교과서 주식회사는 국영기업체의 하나로 지난52년 7월 설립됐다. 자본금은 80억원, 이중 정부소유 주식이 88·7%이다. 현재 전국의 국민학교및 중학교의 모든교과서와 고등학교의 국책교과서를 인쇄제작, 각급 학교에 공급한다. 최근에는 일본 필리핀등외국의 서적도 인쇄, 외화를 벌어들이고있다.

아빠…여보…눈물의 포옹

太白炭鑛에 慶事 同僚광부 줄이어「生還」축하

【太白=朴珍列·朴榮基기자】 광부들의 극적인 구조는 태백탄광촌의 경사였다. 남편과 아버지의 생사를 몰라 14일간 애태웠던 가족들은 물론 동료와 주민들까지 모두 탄광으로 달려가 축하했고 병원에도 축하객이 줄을 이었으며 한성광업소측은 사장이하 전임원이 현지에 급히 내려와 생존광부의 치료와 뒷수습을 지휘했다.

사고경위 사고는 지난달 20일 하오7시 太白탄광의 굴진막장에서 광부들이 굴진작업장에서 일하는 사이 일어나 굴진막장이 매몰면, 생막장에서 2명이 매몰됐다. 당시 매몰사고는 반괴의 층적으로 갱내의 괴었던 물이 쏟아져나와 일어났는데 승갱도에있던 4명은 대피해서무사했다.

구조경위 구조작업을 지도했던 趙柄吉씨(37)에 의하면 사고장은 1백50마력짜리 잠수펌프와 양수기를총동원, 물을퍼내는 작업을 펴나가기 시작했으나 갱도 중간부분이 무너져 다시보갱작업을 해야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이 8일간 계속중에 엘리스호로인한 폭우로 갱도에 물이차 구조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것. 그래서 모두 절망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구조작업 13일만인 2일 밤8시께 지하7백27m갱도중 막혔던 갱도가 직경50cm정도 뚫렸는데 뚫린 도속은 물이차있고 갱도가 무너져있어 그쪽으로 물을 퍼내고 갱도보강작업을 했다.

20일 하오2시께 구멍난 갱도내 잠수펌프를 넣으려로하는순간 파이프두드리는 소리가 나 이들이 생존돼있음을확인했고 이어 소리가나는 방향으로 계속파들어가다보니 1톤짜리 탄차가 가로막고있어 산소통으로 구멍을내고 갱목을받침으로 안전조치를했다. 그순간 매몰된 광부들은 가로막힌 갱목을 자르기위해 『톱과 램프를 들여보내달라』고 요청, 톱과 램프를들여보냈고 안에서 기진맥진한몸으로 사력을다해 톱으로 갱목을잘라 통로를 만들었다.

구조반원들은 2시간30분의 작업으로 이들을 무사히 구출한뒤 대기시킨 탄차로 운반해 앰뷸런스를 급히 송시킬수 있었다.

구조순간 매몰광부 배씨등4명이 구조반원 등에 업혀 갱밖으로나오자 초조하게 기다리고있던 가족들과 동료광부들은 『와!』하며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가족들은 동료등에 업혀있는 광부들에게 달려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여보!』『아빠!』『엄마나 고생이 많았소…』 외치며 돌아켜 안았다.

구조된 광부들은 가족들의 손만 꼭잡은채 아무말도 하지못했고 눈물가린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으나 사투14일만에 생환하는 기쁨에 미소를 잃지않았으며 이를 쳐다보는 주민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생존자 살아난 광부들 중 裵씨는 광부경력20년 베테랑으로 3년전 매몰사고때도 3일만에 구출된 경험이있어 이번사고에도 배씨는 동료광부들을 침착하게 지도해온 덕분에 살아날수 있었다.

家庭用가스 定量속여 業主4명에 令狀

서울시경은 3일 가정용가스통에서 10~20%씩 가스를 빼내 양을 속인채 팔아온 文化가스사 대표 鄭珠漢씨(57·서울西大門區弘濟洞157의68) 太陽가스사 대표 全始建씨(27·서울 麻浦區新孔德洞2의487) 고려가스사 대표 李光鎬씨(30·서울鍾路區內資洞177) 大成가스사대표 崔林碩씨(33·서울鍾路區內資洞199) 등 4명을 사기·가스사업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文化가스사 대표 鄭씨는 지난해 1월초부터 10·20·50kg들이 LPG 프로판가스를 팔며 이같은 수법을 사용, 지금까지 1천만6천2백32kg (싯가 1천3백27만7천원어치)을 빼돌렸으며 나머지 세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했다는 것이다.

대학4년생 早期취업禁止

文教部지시 학년末 考査후 入社시험

문교부는 3일 대학 4년생들의 기업체 조기취업을 금지키로하는한편 이같은 뜻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상공부 재무부 건설부등 관계부처에 보냈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은행을포함 각기업체가 신입사원을 확보하기도중 조기채용함으로써 대학졸업예정자인 4학년생들의 법정수업일수의 결손을 불가피하게하고 이에따른 질적저하와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것.

문교부는 이에따라 학생들이 학년말고사이전에 기업체에 조기입사하지 못하도록하라고 각대학에 당부하는 한편 각기업체에서도 학년말고사후에 입사시험을 치르게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문교부는 또 각기업체가 신입사원을 모집할때 중앙과 지방대학 출신을 의도적으로 차별, 채용하는 경향이 많아 지방대학생들의 불만이 크다고지적, 지역별 차별채용이 없도록해달라고 관계부처와 각업체에 협조요청했다.

構造변경해주고 賂物받은
永登浦區廳직원令狀

江南區廳직원은 手配

서울시내 일부 구청건축과 직원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치안본부수사대는 3일 永登浦구청건축과 기원보 徐源福씨(2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江南구청건축과직원 1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徐씨는 지난7월16일 汝矣島에 13층짜리 모교회 교육관 준공검사를 둘러싸고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지하1·2·3층중 1층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을해주면서 시공회사인 우창건설로부터 2백50만원을받아 착복한 혐의다.

경찰은 돈을 건네준 우창건설 간부가 현재 해외여행중이어서 귀국하는대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江南구청 건축과직원1명이 단독주택 준공검사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있으나 관계공무원이 도주 수배중이라고밝혔다.

트럭적재함에 구멍 탄피萬여개 우르르

2일하오7시30분께 서울道峰區上溪1洞521앞길에서 탄피를 싣고가던 대한통운소속 서울7아3270호 12톤트럭(운전사 李龍植·52)의 적재함에 구멍이나 탄피1만여개가 흘러나오는바람에 뒤따르던 차량들이 실탄으로알고 터질까봐서행, 1시간가량 혼잡을빚었다.

운전사 李씨는 탄피10톤을 싣고 가다 적재함에 뚫린 지름10cm가량의 구멍에 박은 수건이 빠져 탄피가 흘러졌다고 말했다. 길위에 떨어진 탄피는 30분만에 치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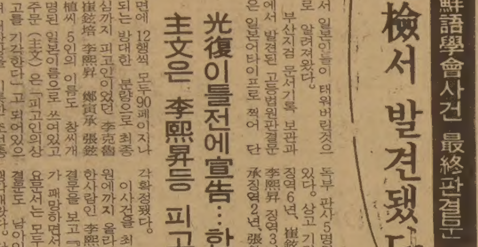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881

5行뉴스

◇어린이2명 하천서 溺死 【大邱】2일 하오5시30분께 경북星州郡船南面舊道洞앞 하천에서 이마을 석종철씨(33)의 2남 경원군(3)과 김봉이씨(24)의 장남성기군(4)등 2명이 물에빠져 숨져있는것을 같은 마을 박재은씨(여·34)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팔】

燒失추정 朝鮮語學會사건 最終관결문
釜山地檢서 발견됐다

光復이틀전에宣告…한면에12行씩 90페이지
主文은 李熙昇등 피고인의上告를 기각한다



◇선고가 있은지 37년만에 발견된 조선어학회사건 고법판결문, 당시 피고인 李克魯, 崔鉉培, 李熙昇, 鄭寅承씨등의 이름이 창씨개명된채 적혀있다.

일제가 한국인의 민족사상 말살정책의 하나로 국어학자들을 무더기로 구속했던 조선어학회사건의 조선고등법원(현재 대법원)판결문이 3일 부산지검에서 처음으로 발견돼 독립운동사의 귀중한 자료가 되게됐다.

지금까지 한글학회등에서 갖고있는 조선어학회사건 관련 기록은 예심(豫審)판결문뿐이며 咸興지방법원판결문과 고등법원판결문은 지금까지 입수되지 않고 있었다. 1심지법판결문은 재판장소가 이북이어서 북한에 있거나 6·25때 소실된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해왔고 고등법원판결문도 선고기일이 45년8월13일 이어서 일본인들이 태워버린것으로 알려져왔다.

부산지검 문서기록 보관과에서 발견된 고등법원판결문은 일본어타이프로 적어 단면에 12행씩 모두9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분량으로 최종심까지 피고인이었던 李克魯 崔鉉培 李熙昇 鄭寅承 張鉉植씨 5인의 이름도 창씨개명된 일본이름으로 쓰여있고 주문(主文)은 「피고인의상고를 기각한다」고 되어있으며 재판장을 비롯한 조선총독부 판사5명의 서명이되어있다. 상고 기각으로 李克魯 징역6년, 崔鉉培징역4년, 李熙昇 징역3년6개월, 鄭寅承 징역2년, 張鉉植 무죄가각각 확정됐다.

이 사건을 최고심인 고등법원에까지 올라갔던 5명중의 한사람인 李熙昇박사는 이판결문을 보고 『지금까지 일제가 패망하면서 당시관서중요문서는 모두 태워버려 결론도 남아있지않은것으로 생각해왔다. 당시 민족신문 폐간상태에있어 기록은한번도 공개되지 못했다』면서 『일제의 잔학한 식민지정책을 입증하고 귀중한 독립운동의 자료가 될것』이라고말했다.

李박사에 의하면 당시 8월13일 선고당시 咸興형무소에 있으면서 전시중이란 이유로 법정에도 참석지 못했고 판결내용은 구두로도 못했다고 회고했다.

또 鄭寅承박사도 『선고 이틀후에 해방을 맞았으나 일본인들이 도망가버려 8월17일에야 한국인 간수장에 의해 풀려났다』면서 『최종심인고등법원 판결문이 발견됐으므로 조선어학회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충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腦炎증세로 어린이 숨져

【大邱】경북대의대부속병원에 뇌염증세로 입원중인 이창엽군(9·경북 月城郡江東面安溪洞)이 3일 숨졌다.【팔】

擬似뇌염患者 慶南 8명앓아

【釜山】경남도내에서도 8명의 어린이가 의사뇌염증세로 앓고있어 3일밝혀졌다. 경남도 보사당국에 따르면 지난1일 固城郡大可面新田里 朴모군(10)이 고열과 심한 구토증세로 晉州유양병원에 입원가료중인것을비롯, 도내에서 8명의어린이가 증세로 앓고있다는 것.【팔】

지각생 숨져 規律部員에맞고

【安東】경북安東경찰서는 3일 지각한 학생을 때려 숨지게한 安東고교 규율부3학년 嚴모군(18)을 폭행치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嚴군은 2일상오7시50분께 이학교 2학년 權泰석군(17)이 지각한후 정문으로 등교하지않고 다른곳으로 간다고 불러세워 앞가슴을 한데때렸는데 權군이갑자기 넘어지면서 숨졌다는것.【팔】

가봉에! KAL 定期노선 내년부터

대한항공은 3일 내년6월부터 아프리카 가봉에 화물및 여객정기노선을 개설키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全斗煥대통령의 아프리카순방여행을 수행했던 趙重勳사장이 가봉정부측과 취항을위한 실무협정을 진행중이며 9월중에 협정체결에 일단 합의함에 따라 정비운항훈련등 실무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달리기하다 女中生 또숨져

【釜山】체력장연습을하던 여중생이 심장마비로 숨졌다. 2일하오3시35분께 부산시東萊區東萊여중운동장에서 체력장연습을하던 3학년 정미양(15·東萊區溫泉2洞1062)이 1백m 달리기를 하다 90m지점에서 갑자기 쓰러져 체육교사 차용범씨(27)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숨졌다.

憤死한 姜錫天옹 어제 永訣式엄수

關東대지진 59주년기념강연회에서 일제만행을 증언하다 분사한 靑邱 姜錫天옹(82)의영결식이 3일상오10시 서울城北區貞陵1洞 자택에서 거행되었다. 기독교의식으로거행된 영결식에는 평소고인과가까이지내던 尹致暎·具鎔書씨등 각계인사 3백여명이 참석, 姜옹의 고귀한 뜻을기렸다. 고인의 빈소에는 全斗煥대통령과 丁來赫국회의장·金相浹국무총리서리가 보내온 조화가 놓여있었다. 姜옹의유해는 이날하오 경기坡州郡 선영에안장됐다.

戰況일지 壬辰錄 발견
"對馬島도被占" 한국領밝혀

亂中日記보다 상세

【大邱】李舜臣장군이 亂中日記보다 더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7년간에 걸쳐 임진왜란의 전사를 기록한 壬辰錄이 慶州李씨 直長公파17代손 李鍾周씨(68·慶北義城郡義城邑후竹동475의3)가에서 慶北大교육대학원장徐首生박사(국문학)에 의해 3일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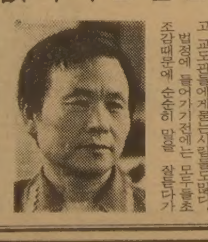
이 기록은 李씨의 12대조인 李貞英선생이 壬辰亂이 일어나던 宣祖임진년음력3월9일부터 戊戌년12월까지 7년간에걸쳐 壬辰亂당시 좌의정이며 都體察使인 柳成龍과 경상도 招諭使였던 金鶴峰장군지휘하에서 모병과 군자전지인 籌劃으로 근무하며 매일매일의전황을 상·하권으로 기록한것이다.

徐박사에 따르면 이 기록에는 壬辰亂이 일어나기 몇해전까지 대마도가 우리 영토였다가 왜인들에 의해 점령당한 사실이 기록돼 있어 대마도가 우리 영토였다는사실을 문헌상으로 처음 밝혀냈다는것.

주간女性

四人과의「外出」
서울구치소 出廷과장 柳東沂씨

"내할일이 없어지는날은 언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西小門법원구내의 각법정과 검사실에는 푸른수의 차림의 미결수들이 다시 붐비기 시작했다. 8월의 복더위속에 판·검사들이 휴가로, 또 정기인사로 한동안 멀렸던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심리되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 출정과장 柳東沂씨(46·사진). 그는 매일같이 절도 사기·강도·살인등 갖가지 죄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수없이만난다. 일생을 좌우하게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절박한 상황에있는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에 접한다. 그의 직무는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의 하루일과를 보면 아침8시에 서울구치소로 출근, 그날 검찰에 소환된사람, 재판을 받을 사람들을 점호한뒤 호송버스에 분승시켜 西小門법원 구내구치감으로 호송한다. 구치감에 대기시킨 미결수들을 다시 9개법정으로, 검사실로 교도관을 대동시켜 보낸다. 하루평균 2백4여명, 많을땐 4백여명의 미결수를 맡는다.

이런일은 단순한일같지만 그의말에 의하면 무척 긴장이 계속되는 어려운일이다. 매일처럼 사람이 바뀌는 탓도 있지만 그들은 갖가지 범죄를 저지른 저항심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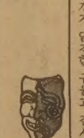
그가 직무상 가장철칙으로 지키도록한 규율은 미결수의 집단이동을 하는데 신속하고 질서있게 그리고 한마디의 대화도 허용치않는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는것.

죄수들의 공통점은 공범자끼리틈만있으면 얘기를 건네려한다. 서로말을 맞춰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위한것이다. 또 자신들의법정진술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고 교도관들에게 묻는사람들도많다.

법정에 들어가기전에는 모두들초조감때문에 순순히 말을 잘듣다가 예상외의 중형을 구형받거나 선고받고나올땐 난폭해지는 사람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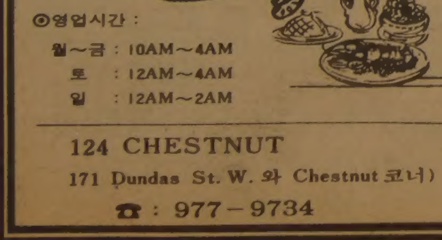
또 눈물을 흘리는 사람, 실신할듯 몸을못가누는 심약한 사람도 더러있다. 그는 이때마다 교도관들에게 그들을 이해하고 진정시키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한다고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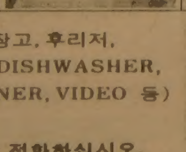
그는 격변기나 불황때마다 자신의 직무는 바빠지고 사회가 안정될수록 할일이 줄어든다고 했다. 평범한 말이지만 거기 진리가 담겼다.



【林承茂기자】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12AM~4AM
일 : 12AM~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트로피
골프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 패
메 달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캐다록에서 50% OFF
트로피 & SPORTS
이 기 훈 ☎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서울世界야구 오늘 韓·伊 첫對決

경기방식·운동장·시간등을 알아본다

한국야구 80년사에 가장큰 잔치인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가 오늘(4일) 하오1시 잠실구장에서 개막된다. 아시아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것은 80년 동경대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한국은 동경에서 우승팀 쿠바에 이어 주최국 일본과 함께 공동준우승을 차지했으나 이번대회서는 쿠바의 불참과 홈구장의 잇점을 안고 대망의 첫 우승을 노리고 있다. 4일 하오1시 개회식에 이어 金相浹국무총리의 시구로 한국-이탈리아전이 플레이·볼이 선언되고 참가10개국 대표팀들은 10일간 잠실, 서울운동장, 인천구장에서 45게임의 풀·리그 경기로 대회패권을 겨루게 된다.

한국、待望의 制覇 별러

10개국 45게임 풀리그

共同首位면 우승決定戰 가져

◇몸 구석구석까지 워밍업 세계선수권 개막을 하루앞둔 3일 캐나다 선수들이 몸을 풀고있다.

경기방식 4일 하오3시 金相浹총리의 시구로 벌어지는 한국-이탈리아전을 스타트로 참가 10개팀은 각각 9게임씩, 총45게임의 풀·리그로 우승을 가린다。 공동수위팀이 2개팀일때는 한차례의 우승결정전을, 3팀이상일때는 추첨에 의한 토너먼트로 우승결정전을 갖는다.

단체및 개인상 우승한 팀에게는 우승컵과 금메달, 준우승팀에게는 준우승컵과 은메달, 3위팀에게는 3위입상컵과 동메달이 수여된다.

개인상으로는 최우수선수상, 우수투수상, 최우수방어율상, 타격상, 타점상, 득점상, 홈런상, 도루상이 수여되며, 대회성적을 토대로 우완투수, 좌완투수, 포수, 지명타자및 각수비포지션별 우수선수 11명에게 올스타상패가 수여된다.

또한 각 참가국에 세계선수권대회 참가증서패가 거증된다.

경기장 주경기장인 잠실구장은 관중수용능력3만5천。 4일부터 14일까지 매일하오3시와 6시30분 2게임씩 모두 20게임이 벌어진다。 서울운동장서는 매일 1시와 4시30분 2게임씩 19게임이 벌어진다。 인천구장은 1만5천명을 수용하며 6일간 하오2시30분에 6게임이 소화된다。

입장권 잠실구장과 서울운동장은 특석 5천원, 일반3천원, 학생 1천원이며 인천구장은 일반 2천원, 학생 1천원이다。

대회 조직위는 암표방지를 위해 예매를않고 당일상오10시부터 해당구장에서 매표하기로했다.

국제회의 1일과 5일, 2차에걸쳐 아시아연맹(BFA) 총회가 열리고 2、3일 이틀동안 AINBA총회가 열렸다。 이번대회에 대비해 AINBA의 청소년, 법제, 집행, 심판, 기술등 분과별 회의로 워커힐및 한국종합전시관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심벌마크

대회준비 대한야구협회는 이번대회 총예산을 7억6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수입부문은 입장수입 3억원, 국고보조 1억원, KBS및 MBC TV중계권료 1억원, 자유중국 TV중계료 2천3백만원정도。 모자라는 2억여원의 경비는 협회예산등으로 충당할수밖에 없다.

7억원의 큰 돈을 들이지만 대회준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충이 많다。 총무, 재무, 식전, 경기, 시설, 심판, 기록, 운송, 경비, 선수촌, 국제파트별 분과위원들이 동분서주 하고있으나 국제대회운영의 경험미숙과 사전점검미비로 대진표도 수차례 바뀌었으며 국제회의장서도 혼란이 일어났다.

세계야구선수권대회는 대회준비나 조직력에서 큰 찬사를 받았던 8월의 제2회 서울 오픈탁구와는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세계야구 대회일정

일자	잠실구장 3시	잠실구장 6시	서울운동장 1시	서울운동장 4시반	인천구장 2시반
4	한—伊	美—加		파—中	
5	한—美	和—파	中—伊	加—도	日—濠
6	도—파	伊—日	濠—美	中—加	和—한
7	日—中	濠—加	和—伊	美—도	
8	濠—和	한—中	도—日	加—伊	美—파
10	美—和	파—한	加—日	伊—도	濠—中
11	한—加	日—美	도—濠	中—和	파—伊
12	파—加	도—한	伊—濠	和—日	
13	한—濠	中—도	日—파	伊—美	加—和
14	美—中	한—日	도—和	濠—파	

한국、強敵 中共등과 豫選

프랑스·핀란드도 만만찮게 急成長

아르헨世界男排球 선수向發

제10회 세계남자배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한국남자배구대표팀이 4일상오 KAL편으로 출국한다。 선수단은 본대회(10월2~15일·아르헨티나) 출전에 앞서 브라질에서 벌어지는프레대회(17~25일)에 참가、전력을 점검하게 된다.

지역예선을 거친 세계상위 24개국팀이 출전하는 이번대회서 한국은 中共·프랑스·핀란드등과 함께 예선E조에속해있다。 中共이 예선조에서 최대강적으로 꼽히고 있으나 프랑스와 핀란드도 만만치않다。 프랑스는 최근들어 전력이급성장、지난해 연말 西獨 함부르크 국제대회에서 한국을 물리친바있고、핀란드는 참가팀중 최장신을 자랑하고 있다.

78년 9회대회(이탈리아)에서 4위를 차지、세계배구계를 놀라게했던 한국은 당초 이번 대회서 상위입상을 목표로 잡았으나 왼쪽 주공 姜斗泰와 중앙속공수 文湧冠이 부상등으로 빠져 전력에 차질을 빚고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 진출했던 기교파 세터 金浩哲을 복귀시켰고 전국가대표팀 주장인 거포 姜萬守를 트레이너로 기용、팀웍을 보강하는한편 상황에따라 姜의 코트복귀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선수단 ▲단장=車鎭洪 ▲총무=朴勝洙 ▲심판=李鴻鎭 ▲감독=李圭昭 ▲코치=崔宗玉 ▲트레이너=姜萬守 ▲선수=金浩哲(무소속) 李範柱(금성통신) 張允昌·金炯泰·李鍾敬(이상경기대) 柳重卓·金京雲·韓壯錫(이상인하대) 金仁玉·李元宰(이상서울대) 金相保(성균관대) 韓相圭(서강대)

印아시안게임 걱정

한국代表선수 20여명이 負傷·질병

제9회 印度 아시안게임을 70여일앞두고 泰陵선수촌서 훈련중인 각종목별 주력대표선수20여명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부상을입고있어 선수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아시안게임에대비、지난해1월부터 16개종목 2백95명(임원43·선수2백52명)을 대상으로 강화훈련을 실시해왔으나 농구를비롯、배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복싱역도등 구기종목의 에이스급 선수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다.

남자농구의 경우 장신센터 曺東佑(25·三星電子)가 간염으로 입원한것을 비롯, 朴仁圭(陸軍)가 지난달 필리핀원정때 부상을 입어 치료중이다.

또 여자농구 국내최장신인 金英姬(한국화장품)가 허리부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있고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中共을 꺾는데 결정적인 수훈을 세웠던 權明嬉(태평양화학)는 오른쪽무릎연골이 파열돼 泰陵선수촌에서 물리치료를 받고있다.

프로야구

三星、OB꺾어 21승으로 先頭

金準桓도 홈런1位

金準桓이 홈런·더비선두에 올라섰다。 해태·타이거스의 장타자 金準桓은 2일 釜山九德경기장에서 벌어진 라이벌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9회초 롯데 에이스 盧相守로부터 동점 2점홈런을 날려 전·후기통산 홈런14개를 마크、동료金奉淵、MBC의 白仁天과함께 홈런·더비1위로 나섰다。 롯데는 이날 연장10회말 선두9번 權斗祚와 鄭學守의 내야안타와 3번金貞洙의 결승 좌전적시타로 3-2로 신승했다。

한편 OB와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있는 三星·라이온즈는 대전서벌어진 경기서 11안타를 퍼부어 범실이 잦은 OB를 7-0으로 완파하고 21승6패를 기록、OB로부터 단독선두를 빼앗았다.

〈10회연장〉 ▲홈런=金準桓(9회·2점·해태)

◇후기 중간순위 (2일현재)

팀	승	패	승률
①삼성	21	6	·778
②OB	18	6	·750
③롯데	12	10	·545
④MBC	14	12	·538
⑤해태	7	16	·304
⑥삼미	2	24	·076

事業성공 百萬長者 水泳7冠王 스피츠

◇스피츠

72년 뮌헨올림픽 수영부문에서 전인미답의 7관왕을차지한 美國의 수영스타 마크·스피츠가 백만장자 사업자로 변신, 또다른 재능을 과시하고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피츠는 현재 캘리포니아와 하와이등지에 대규모 아파트와콘도미니엄을 소유、美國굴지의 부동산사업가로 자리를굳혔다는것。 그는 과거의 화려한 명성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업가로서 내면적인 변화도 보이고있다。

금년32세의 스피츠는 10년전 뮌헨에서 7개의 세계기록을 세우면서 7개의 金메달을 획득、美國에서『린드버그이래 최대의 英雄』으로각광을 받았었다。

84년 28회大會는 베네수엘라 確定

국제야구연맹(AINBA)은 3일 영동종합전시관회의실에서 이틀간의 총회를 마치고 오는84년의 28회 세계야구대회를 베네수엘라서 열기로 확정하는 한편 86년대회는 네덜란드、83년 대륙간컵대회는 벨기에에서 각각열기로했다.

한국도 參加키로 볼리바르 복싱

【카라카스(베네수엘라)AP=聯合】 한국은 12일부터 19일까지 베네수엘라의 바르키시메토시에서 열리는 시몬·볼리바르 세계복싱컵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엘·나시오날紙가 2일 보도했다。

駐스웨덴 趙璋元씨 서울卓球협조 叙勳

정부는 스웨덴에 거주하는 趙璋元씨에게 체육훈장 백마장을 3일 수여했다。 趙씨는 스웨덴서 의사로 활약하면서 서울오픈 국제탁구대회에 유럽팀이 많이 참가하도록 적극 주선했고 스포츠 외교를 통해 국위를 선양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단군위령제등 祭禮 太白祭로 統一

【太白】太白시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개최돼오던 단군제、사망광부 위령제등 각종 제례행사를 통폐합、올해부터는 개천절을 전후해 종합적으로 太白祭를 베풀기로 했다。

3일 太白市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개천절을전후한 각종 문화행사를 한데모아 단군제、위령제를 비롯한 제례행사를 비롯 학생백일장、가곡의밤등 문화행사까지 다채롭게 펼치기로 했다는것。

이에따라 太白市는 제1회 太白祭를 개천절인 내달3、4일 이틀간에걸쳐 실시키로 했는데 이번에는 太白지구특유의 황부자 탈춤놀이를 선보일 계획이다.【聯合】

보십시요

새 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 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 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여름을 시원하게

젝·니콜라우스 골프 레슨 테프 입하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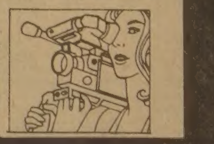
●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 600여각종비데오대여

상점도난방지및안전을위한비데오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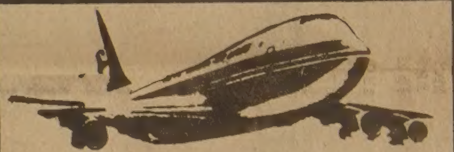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 센터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한번오시면

계속 오시게 됩니다

★★★★ 서울식품서부지점 ★★★★

개업특별세일

배추김치·총각무·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배이 ● 큰 병 $6.99 ~~$9.50~~

● 작은병 $4.50 ~~$6.90~~

	SPEC	REG.
북어포	1.25	~~1.55~~
마른미역	1.99	~~2.50~~
물미역	.99	~~1.29~~
소 면	.89	~~.99~~
냉 면	.99	~~1.29~~
도라지	2.49	~~2.95~~
물오징어	.85	~~.99~~

※ 갈비·불고기·배추·무우는 도매가격으로 제공

쌀 {신품 대한 쌀 가주미 장미표 국보 경기미} 사실때 는 삼양라면이나 삼양칼국수 3봉지씩 무료제공합니다. 쌀도 최저가격으로 팝니다.

박 영 조

주소 : 1391 WESTON RD. ☎ : 243－9544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VARIETY STORE

주매상 $7,000, Rent $2,350, 4년, 5년옵션, 가격 $75,000

주매상 $11,000, Rent $1,149, 3년, 10년옵션, 가격 $155,000

주매상 $14,000, Rent $3,707, 7년, 10년옵션, 가격 $225,000

주매상 $5,500, Rent $1,970, 1년, 8년, 5년옵션, Asking $50,000

★상용건물

1)Bloor 한인 상가에 위치한 4 Bedroom 아파트와 1008SQF 되는 새로 단장된 빈 상점이며, 한인을 위한 사업장소로 최적, $55,000 다운, Asking $142,500

2)Dry Cleaning 상점이 있는 대형 3 Bedroom 달린 벽돌건물 사업과 함께 매도, 빌딩 가격 $170,000.

★상용건물과 VARIETY

1)Variety 주매상 $7,000

1Bedroom 아파트 4채, $200,000 다운, 가격 $430,000(건물+사업)

2)Variety 주매상 $11,000

1Bedroom 아파트 5채, $150,000 다운, 가격 $400,000(건물+사업)

3)Grocery 주매상 $6,000

2 Bedroom 아파트 2채, $70,000 다운, $255,000(건물+사업)

★TAVERN과 식당

1)년매상 $1,000,000, Rent $3,500, 3년, 10년옵션, $100,000 다운, 가격 $350,000(Buliding도 따로 팔수 있음)

2)년매상 $260,000, Rent $1,575, 1년, 5년옵션, $50,000 다운, 가격 $145,000

▲BAKERY

Hunts Bakery : Shopping Center내에 새로 Open, 매상이 날로 증가, $40,000 다운, 가격 $135,000

★DRY CLEANING 년매상 $55,000, Rent $1,100, 5년+5년, 가격 $40,000

★DONUTS SHOP 1)주매상 $7,000, Rent $3,400, 4년, 16년옵션, 월 $5,000 Net로 과외수입 있음, 가격 $270,000

2)주매상 $8,000, Rent $2,500, 4년, 10년옵션, $150,000 다운, Asking $330,000

3)주6일(일요일 닫음), 하루12시간만 하는 Dount Shop, 년순수익 약 $50,000, 가격 $125,000

★SHOPPING MALL

1)Smoke & Gift Shop 6개월전 Open, 주매상 $4,000, 가격 $55,000

2)Gift Shop 및 Hobby Claft Shop 몇개 있음.

★주택 1)Scarboro 방갈로, 4 Bedroom 지하실이 잘 꾸며짐. Fire Place, Sauna, Wet Bar, 가격 $124,900

2)고급주택 $100,000 $120,000 $150,000 $200,000 $250,000

이 좋은 조건으로 North York, Don Mill 에리아에 많이 있으니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M3B 1Z3

TEL (416)449－8644～5(B) · 286－1548(R)

江戶前 太鼓寿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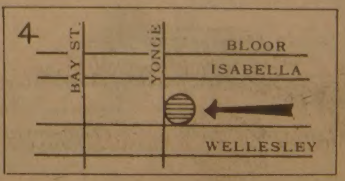
어제 오신 분이

또 오십니다

쓰시(김밥) 전문

일본음식중 김밥만 전문으로 하고 있읍니다.

밤 12시까지 OPEN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십시오.



TAIKO SUSHI

607A YONGE ST.

☎ : 921－6408

美, 팔自治政府수립 제창

요르단江西岸·가자地區에 이定着村건설은 즉각中止

레이건 새中東정책 演說

【워싱턴2日=李文熙특파원】 레이건 美대통령은 2일상오10시 (한국시간) 이스라엘이 점령중인 요르단江西岸과 가자지구에 요르단 관할하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할것을 촉구했다。레이건대통령은 이날 전국TV연설을통해 이스라엘을확고하고 공정하며 항구적인』中東평화를 위해 요르단江西岸과 가자지구를 요르단관리하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긴首相 거부 확실

레이건 대통령은 또 이들은 이스라엘 점령지역에 살고있는 팔레스타인人들이『요르단과 협력하여』『독립국가』가 아닌『자치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요르단江西岸과 가자지구에 더이상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세워지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못박고『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동결』은 中東평화의 전망을 밝게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67년이후 이스라엘에 점령돼있는 예루살렘이 분할돼선 안되며 예루살렘문제는 협상에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밖에도 美國의 對이스라엘 방위공약이『철석같다』고 말했으나 그의 이러한 제안은 메나헴·베긴 수상의 이스라엘정부에 의해 거부될것이 거의 확실하다。

레이건대통령은 미국이 이상과같이 원칙을 성실히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고『미국은 요르단江西岸및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세워진것을 지지하지 않을것이며 이 지역의 영구적인 이스라엘 합병도 지지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베이루트에서 철수를 완료한지 수시간만에행한 이 연설에서 레이건대통령은 모든당사국들에게 자신이 제시한 원칙을 실현시킬수있도록 조속히 행동할것을 촉구하고 PLO의 철수를 감시한 8백명의 美해병대는 앞으로 2주이내에 레바논을 떠날것이라고 밝혔다。

레이건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밝힌『보다 광범위한 평화』를 위한 방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요르단과의 제휴하에 요르단江西岸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人들이 완전자치를 실시한다。

▲자치정부구성을 위한 자유선거를 실시, 팔레스타인人들도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다루어나갈수 있음을 입증한다。

▲이 지역에서의 이스라엘 정착촌건설을 즉각중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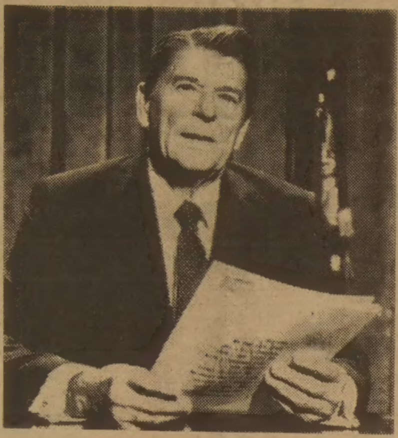
▲5년간에 걸쳐 이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평화적이고질서있게 이스라엘로부터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이양한다。

▲미국은 요르단江西岸과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창설하는것과 이지역이 이스라엘에 영구적으로장악되는것을 지지하지않는다。

▲요르단과 제휴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수립은 확고하고 공정하며 항구적인평화를 위해 최선의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아랍─이스라엘분쟁은영토교환도 그대상에 포함되는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한다。

▲예루살렘은 계속 분단상태로 남아서는 안되나 그 최종적인지위는 협상을통해 해결돼야한다。



◇로널드·레이건美대통령이 1일 NBC·TV로 방송된 전국연설에서 中東평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들을 제안하고있다。 【버뱅크 (美캘리포니아州) 1日AP電送=聯合】

"PLO 이제 끝장 팔人의 代表로볼수없다"

와인버거美國防

【보스턴UPI=聯合】 와인버거 국방장관은 1일 군사적세력으로서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는 이제 끝장났으며 PLO는 팔레스타인人들의 진정한대표가 아니라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이날 발행된 보스턴·글로브紙와의 회견에서 이같이말하고 미국정부는 팔레스타인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새로운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문제는『다각적방법으로 해결될수있으나 그 최선의 해결책이 팔레스타인 국가창설에 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했다。

對阿 經協실무團 구성

金부총리 基金신설·새金融지원制度도

全대통령 阿洲순방 後續조치등 총괄

정부는 아프리카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기위해 정부내에 상설기구로 經協實務團을 구성, 운용키로했다。이와아울러 경협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줄 經濟協力基金을 새로 하나만들고 중소기업진출과 기술인력송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金融支援制度도마련하기로 했다。

金埈成부총리는 2일 나이지리아, 가봉, 세네갈, 케냐등 4개국을포함한 아프리카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부처실무자들로 구성되는 존속기간 1~2년의 상설적 행정기구로 經協實務團을 구성,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이 실무단에서 아프리카4개국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들과 경제협력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또 정부재정자금을 출연, 經濟協力基金을 만들생각이며 경협추진에 필요한 재정적지원을 이基金에서 맡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부총리는 基金과는 별도로 새로운 金融支援制度를마련,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과 기술자들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로 설치될 아프리카 經協實務團은 현지에 조사단을 수시로 파견, 경협대상업종과 합작이 필요한분야, 진출가능한 부문등을조사하고 조세금융행정등 분야의 지원조치를 전담처리하게되며 協力基金은 기술인력양성및 재정보조등을 해주게 된다。새로 마련되는 金融지원제도는 현지에 정착하는 기술자들과 진출중소기업들에게 국내은행현지지점을 통해 정착자금을 융자해주는것으로 현지공관의 추천을받으면 담보없이 신용으로 2천만원정도 내외의자금을 융자해줄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도 현지에 조사단을보내 민간차원에서의 경제협력 추진방안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阿洲國등 友好증진에감명"

레이건, 全대통령에 巡訪축하親書

레이건美대통령은 1일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앵커리지에 寄着한 全斗煥 대통령에게 국무성 관계관을보내 全대통령의 이번 巡訪의성공을 축하하는 親書를 전달했다고 黃善必 靑瓦臺대변인이 2일 밝혔다。

親書全文은 다음과같다。

『본인은 각하내외분이 앵커리지에 잠시 기착하는 기회를빌어 각하 내외분께 본인 내외의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본인은 또한 각하의 아프리카 4개국및 캐나다순방으로 한국에 중요한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증진하게 된것에 대해 고무와 감명을 받았읍니다。각하의 중요한 순방을 마무리짓는 이 싯점에서 본인은 각하께서 즐겁고 안전한 귀로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松野(국토청장관) 箕輪(郵政相) 파면요구

日社會黨, 왜곡妄言 추궁

【東京2日=宋孝彬특파원】 일본의 제1야당인 社會黨은 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교과서문제에 관해 망언을저지른 마쓰노(松野)국토청장관과 미노와(箕輪) 郵政相의 파면을 스즈끼수상에게 건의키로 했다。

社會黨은 마쓰노국토청장관이『한국에서 伊藤博文을 살해한 자를 영웅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과 미노와우정상이『일본사회에는 일본을 팔아 [illegible] 국민을 배반하는 자 [illegible]』고 망언함으로써 일본의 과거 식민정책과 군국주의를 합리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해임해야 마땅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사회당은 또 기시(岸)前수상을중심으로 舊滿洲國碑의 건립을 추진하고있는 것은 [illegible]거의 침략행위를 추모한다는것으로 이같은 시대역행 행위를 즉각중지할것을 아울러 건의키로 했다。

巡訪성과 중점弘報

平統 정책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2일상오 서울세종문화회관소강당에서 전국2백24개市·郡·區협의회회장단회의를열고 全斗煥대통령의 아프리카 4개국및 캐나다순방성과에대한 보고를 들었다。

회의는 또 앞으로 平統의 이번 全대통령의 5개국순방성과와 8·15경축사에서 밝힌 공산권거주동포 母國방문 허용의 의의에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키로하는한편 지난1년간 협의회별로 펴온 平統의 주요활동결과를 평가한후 앞으로의 협의회활동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접수

<2일접수>

▲江南區 狎鷗亭洞 한양아파트 36동 406호 金海淑할머니=10만원
▲中區 雙林洞 151의57 이격례씨=3만원
▲申京洙씨=1만원
▲冠岳區 [illegible]津1洞 84의33 吳尙姬씨=5천원
▲육군 88부대 천동학씨=5천원
▲서울 [illegible]학교 3년 김은주양=1만원 【소년[illegible] 접수】
▲서울 [illegible]교 1학년 김창규군=5[illegible]【〃】
▲서울 홍제국민학교 6학년 강은영양=5천원【〃】
▲서울 단국중학교 1학년 정태호군=2천원【〃】
▲서울 세종국민학교 6학년 배상준군=3만원【〃】
▲서울 리라국민학교 4학년 정영석군·2학년정재은양 남매=2만원【〃】
▲서울 리라국민학교 3학년 장재원·장재용군 형제=5천원【〃】
▲서울 동양중학교 2학년 김환규군=5천원【〃】
▲서울 노량진국민학교6학년 김희균군=5천원【〃】

◇亡命길 아라파트 希首相만나 — 안드레아스·파판드루 그리스수상이 1일 망명길에 올라 아테네에 첫기착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의장 야세르·아라파트를 맞아 포옹하고 있다 【아테네電送=聯合】

比 마르코스大統領後任에 이멜다 承繼추진

有故대비 制度的장치 재조정

【마닐라AP=聯合】 필리핀정부는 현재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페르디난드·마르코스대통령(64)이 오는 87년까지의 現 6년임기를 채우지 못하게될경우 마르코스대통령부인인 이멜다여사(53)를 마르코스 대통령후임으로 승계시킬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본격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는것으로 1일 밝혀졌다。

필리핀의회는 현재 마르코스대통령의 有故時 대통령권한을 대행할 후임자선정에관한 법을 개정키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개정작업의 時限은 마르코스대통령의 65회 생일을 불과 하루앞둔 오는10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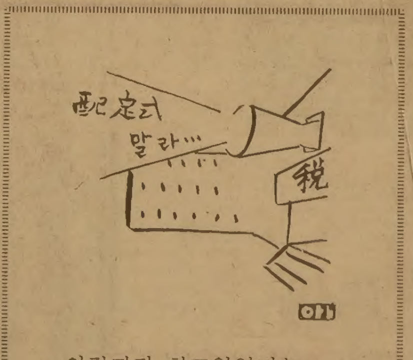
의회에서 審議중인 마르코스후임선정방안은 마르코스대통령이 오는87년이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직무수행이불가능한 영구적 不能상태에빠질경우 過渡정부를 이끌15人집행위원회의 기능과 책무를 이보다 상세히 규정할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는 세자르·비라타首相겸 財相이 15人집행위원회를 이끌고 있으나 社會事業相겸 首都圈知事인 이멜다여사가 최근 이위원회의 위원이 됨으로써 비라타首相이 멀지않아 首相職에서 물러나게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멜다 여사는 현재중소기업육성에 역점을둔 대규모경제개발계획인 全國복지향상운동(KKK)을 주관하고있다。

집권17년째를 맞고있는마르코스대통령은 최근 건강이악화돼 2일간 병원에 입원한바있다。

社会漫評



아직까지 하고있었다는 얘기구나…

地平線

지난28일 새벽1시께 非武裝地帶내에서 실종된 주한 미군소속 조셉·화이트 일병의 어머니는 최근 레이건 대통령에게『아들을찾아달란』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화이트일병의 어머니는『내자식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들의 忠誠心을 앞세우면서 지금 한사람을잃으면 앞으로 백명의 군인도 예사로 잃게된다고 아들의귀환노력을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것이다。

▼북한측에서는 화이트일병이 北에정치적 「亡命」을 했다고 우기고 있다。주한 유엔군사령부는 그事實여부를 가리기위해 화이트 일병과의「직접면담」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平壤측의 응답은 없다。「亡命」이라는 주장이 화이트일병의自由意思가 아니리라는 심증을 더욱 짙게하는 북측의 동태이다。

▼1975년8월26일 오후 대질무렵。자유의 마을인 大城洞 근처에서 그곳 주민인 金世淵씨가 풀을 베고 있는데 난데없이 북괴병사 2명이 나타나 총을 들이대며「가자」고 金씨에게 발길질을하며 때리기 시작하였다。먼발치서 이를 목격한 주민은 헐레벌떡 마을로 달려가 구원을 요청하였다。그 사이에 북괴군은 金씨를 북으로 납치해 가버렸다。며칠뒤 북한방송은 金씨가「義擧入北」했다고 떠들어댔었다。저들의「망명」이나「入北」주장은 이런식의 것이다。

▼원래 亡命사건은 2차대전후 소련진영에 철의 장막이 드리워지면서 부쩍 많아졌다。自由억압과 박해를 박차고 自由세계로 도망쳐 나온것이 망명의 9할9푼을 차지할 것이다。1976년9월6일 소련空軍중위 벨렌코가 미그25 전투기를 몰고 자유세계로 망명해 왔다。소련은 신경질적으로 벨렌코의 亡命을 부인하면서 기체와 더불어 소련에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그래서 벨렌코는 亡命희망지인 美國으로떠나기앞서駐日소련大使館員과 직접 면담하게되었다。

▼당시소련은 그의 부인과 아이의 편지까지 내보이면서 만류했으나 벨렌코는『자, 나는 갑니다』하며 亡命의길에 올라서고말았다。또 3년전 소련무용가 고드노프가 뉴욕公演중 미국으로망명하였다。이때그는 부인블라소바를 남겨두고 혼자빠져나왔었다。소련단원들은 블라소바를 공항으로 끌고가 소련여객기에 태웠다。미국정부가 이것을 알고 항공기를 억류해버렸다。美·蘇간에 사흘동안 실랑이를 벌인끝에 블라소바를 공동으로 만나 자유의사를 타진키로 했다。면담에서 블라소바는 남편을버리고 모스크바를 택했다。

▼미국은 의외였지만 그를 놓아주었다。「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그러고보면 北에 억류중인 화이트일병에 대해서도 「직접면담」을 통한「자유의사」타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平壤측은 의당 그면담을 허용해야 할일이다。板門店은 그런 자유의사 확인을 존중할줄 아는 지구였고 선례 또한 있었던 곳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Grant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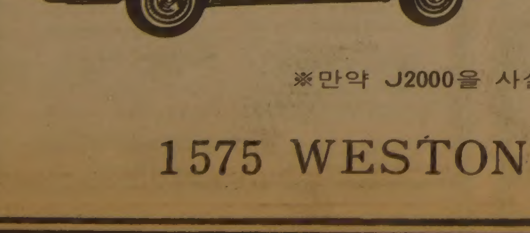
G·M. 새차나 트럭을 구입하시려는 분들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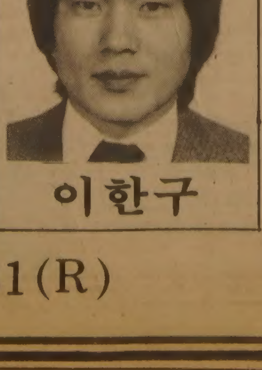
절호의 찬스!

금번 G.M회사에서는 경제불황 타개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82년도형 차를 가격 인하해서 판매합니다.

	모델	인하가격
◎폰티악	J2000	$900
	6000	$700
	ACADIAN	$700
	PHOENIX	$500

	모델	인하가격
◎BUICK	SKYHWAK	$900
	CENTURY	$700
	SKYLARK	$500
	G.M.C 트럭	$400
◎캐딜락	CIMARON	$1,000
	SEVILLE	$2,500





이한구

※만약 J2000을 사실때 종전가격이 $10,000인 경우 : 〈$10,000－$900－종전 DISCOUNT＝구입가격〉

1575 WESTON RD. WESTON ☎ : 247—7161(B) 977—2731(R)

美 獨自해결에 限界

레이건 새中東平和案의 意味

팔問題 관계당사국에 一任

【워싱턴2日=李文熙특파원】 레이건대통령의 중동평화제의는 한마디로 그간 끈질기게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요르단강西岸과 가자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의 자치권을 인정하고있다。

즉 이지역에대한 이스라엘의 더 이상의 정착을 동결하고 요르단과의 협력하에 팔레스타인자치체의 설립, 그리고 협상을 통해 이지역에 대한 최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간 보도에서 전해진바와같이 캠프데이비드합의정신에입각한것이라고 볼수있다。하지만 레이건대통령은 여기에 미국은 이지역에대한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나 병합을 지원하지않을뿐아니라 독립된 팔레스타인국가창설도 지원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결국 이지역문제해결은 최종적으로는 당사자들의 협상에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지역문제의 한계같은 것을 제시해놓고있다。

원래 레이건대통령은 PLO의 철수완료와 아울러 중동에 대한 새평화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해져 왔다。

그러나 이날 캘리포니아의 샌트 바바라에서 휴가중임에도 로스앤젤레스로 날라와 1일 저녁 9시(현지시간) 전국의 TV중계로 새제의를 앞당겨 발표하게 된것은 전날 베긴이스라엘수상에게 보낸 레이건대통령 친서에대한 이스라엘의 부정적반응이 감지된경향 뿐만아니라 비상각의를 소집하는등 본격적인 대응추세를 갖추자 이에 쐐기를 박기위해 평화제의의 전모를발표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긴수상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평화제의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지역에서의 이스라엘정착의 동결을 내용으로하고있으며 레이건대통령은 동시에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등에게도 이에 관련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점과 관련, 레이건대통령의 발표가 있은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요르단과의 협력하에 팔레스타인 자치제의 설립이 단기적인 평화를 가져올수있는 최선의 기회가 될것이라는 발표문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다같이 레이건대통령의 제의에 동해, 중동의 장기적인평화를 가져올수 있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이어 여러 당사국들이 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이제의를 토대로 다음단계로 옮겨갈수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다른관리는 이런과정에서 이스라엘의협상은 물론 앞으로 요르단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나 후세인요르단王이 협상참여의 뜻을 아직 표명하지않고 있다고말했다。

사실 슐츠국무장관이 주도하는 극비작업팀이 마련한이 방안은 그내용에담긴 여러조항들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내 이스라엘지지세력의 반발을 예상했었던것 같다。

하지만 레이건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중동에 평화의 길을 여는 것이 당면과제였으며 이러한 그의 의지는 이날저녁 TV연설마디마디에서 비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그간 하비브특사를 파견, 유혈사태의 종식은 물론 PLO의 철수를 이루게한 그의 외교적성과를 결실로 몰고가기 위해서도더욱 강조되었던 상황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과정에서도 레이건대통령은 이스라엘안보에대한 관심과 이에대한 미국의 지원을 구현함으로써 앞으로의 중동평화협상의 과정에서 일어날 문제의 한계같은 것을 미리 설정해 놓기도 했다。

즉 레이건대통령은『협상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측으로부터의 어떤 제안도 반대할 것』이라고 못박고 있어 이 새로운 제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공고한 관계를 표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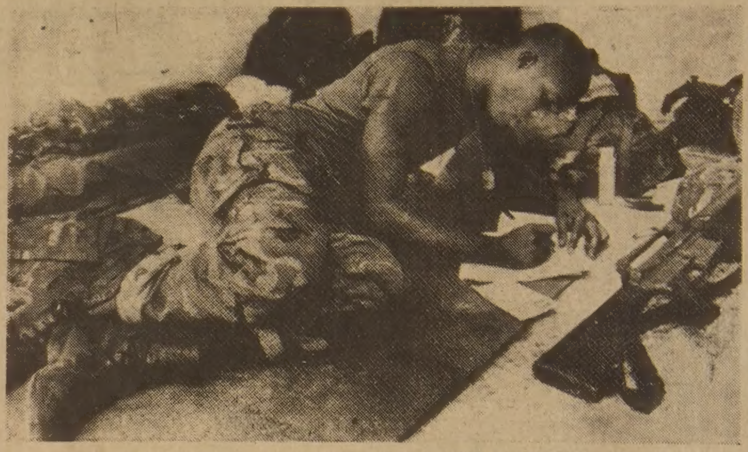
또한 미국이 제의한 새평화방안이란 사실상 이스라엘의 점령지를 아랍국가의관리하에 돌려 주는 것이긴하나 그것이 독립된 팔레스타인국가에게로가 아니라 요르단과의 제휴하에 자치체에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로서는 당장의 상실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제의에담긴 내용이 불가피하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의 과거의 요구를 포기해야하는데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더구나 이 지역을 역사상 유태 사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미국의 제의가 비록 이런 절충을 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반대할 상황입에는 틀림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내의 다수의 여론은 물론 이지역이 이스라엘에 속한다는 베긴수상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한 팔레스타인자치권을 인정하자는 레이건대통령의 제의도 이스라엘내의 일부에서는 공명이있을것으로 보며 제의가 이스라엘내에서 전면거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팔레스타인측은 고사하고 아랍국가들의 태도는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 관계자들은 모두 후세인王의 태도가 가장 주목거리라고 말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베이루트 철수감시임무를 마친美해병대의 한병사가 귀국을 앞두고 고향에 편지를 쓰고있다. 【UPI】

앞으론 직접支援 않기로

短期평화布石…요르단態度가 注目

그것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지역 관계자가운데 아직 PLO가 이지역에서의 유일하게 적법한 팔레스타인의 대변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르단이 바로 팔레스타인국가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가장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수한 PLO의 반응에 관해서는 그반응자체보다는 그간 협상의 주역을 사실상 미국이 맡았고 PLO가 모두 궁극적으로 철수에 응했다는 점을 중시하는 측이 지배적이기도 하다。

즉 PLO가 8개국으로 분산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협상에 응한 것은 그만한 댓가가 어딘가에 보였기때문일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어쨌든 레이건대통령의 이번 제의는 그의 말처럼 해결이 아니라 중동평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로 봐야한다。

그것은 제의자체가 평화에 이르는 수행과정을 제시한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만을 제시한 것이고 그방향자체에 많은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國際뉴스 ABC

「팔」自治정부

요르단江 西岸·가자도 원래「팔」人땅

이·埃、過渡期후 국가創設싸고 異見

―요르단江西岸과 가자지구는 본래 누구의 땅이고 언제 이스라엘이 점령했읍니까。 이외에도 이스라엘이 아랍으로부터 빼앗은 땅은?

▲요르단강西岸과 가자지구는 이스라엘본토와 함께 팔레스타인들이 살던 땅이었읍니다。 그러나 48년5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땅에서 독립을 선언함과 동시에 치러진 1차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땅대부분을 차지했고 요르단강서안은 요르단이、가자지구는 이집트가 합병한것입니다。 67년6월 제3차중동전때 이스라엘은 요르단으로부터 요르단강서안과 東예루살렘을, 시리아로부터 골란고원을, 이집트로부터 가자지구와 시나이반도전역을 점령했읍니다。

이스라엘은 캠프·데이비드협정에 따라 시나이반도는 지난4월25일 이집트에 완전히 반환했지만 골란고원은 81년12월 이스라엘영토로 합방을 선언했고 요르단강서안과 가자지구도 결코 내놓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읍니다。

―이스라엘 정착촌이란?

▲이스라엘당국은 아랍으로부터 빼앗은 광활한 지역을 영구히 이스라엘영토로 만들기위해 점령각지역에 유태인들을 이주시켜 정착촌을 건설했읍니다。

현재 요르단서안에 63개、골란고원에 31개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있고 약2만명이상의 유태인이 살고 있읍니다。 시나이반도를 반환한 직후 이스라엘의 베긴내각은 앞으로 5년내에 정착민수를 10만으로 늘릴 계획아래 요르단서안에 6개정착촌을 새로 짓고 골란고원의 정착민들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센터를 건설한다고 발표, 점령지의 영구적 지배를 노리고 있지요。

―캠프·데이비드중동평화협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78년9월당시카터美대통령의 중재로 사다트이집트대통령과 베긴이스라엘수상이 워싱턴교외의 美대통령별장 캠프·데이비드산장에서 역사적인 중동평화협정을 체약체결▲이스라엘점령하의요르단강서안과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자치정부수립을 합의했읍니다。

협상에따라 시나이반도반환이 이뤄지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체결했으나 팔레스타인자치문제는 도자치정부를 수립하기로 했지요。

이스라엘 이집트 팔레스타인모두 팔레스타인 자치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주장이 달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요。

질적인 자치정부를 부인하고 있읍니다。

―왜요르단서안과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구나 국가 창설이 거론 되는가요。

▲이지역은 팔레스타인땅으로 현재 약1백30만명의팔레스타인사람들이 살고있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영토외에 가장 현실적으로 팔레스타인자치구나 국가건설이 가능한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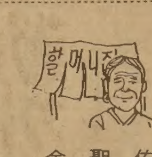
―예루살렘의 지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은 유태교 기독교 회교의 초종과적 聖都로분쟁의 씨앗이 되고있어요。

40년대유태교의성지라면서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48년 東西로 분할、西쪽은 이스라엘이、東쪽은 요르단이 통치했으나 67년전쟁에서 이스라엘은 東예루살렘을 점령、일방적으로 합방을 선언하고 수도로 선언했읍니다。 이스라엘은 회교도의 제3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놓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수도로서 면목을 갖추기 위해 주요정부기관을 옮겨 놓기까지 했지요。 그러나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外信部】

메아리

할머니집



金聖佑 <編輯委員>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은 파리에 있는 「투르·다르장」이다。 1582년에 개업하여 올해로 4백주년을맞는다。 프랑스語에 「레스토랑」이란 말이 처음 생긴것이 1765년이니까 말보다 훨씬 먼저 태어난 레스토랑이다。 이「투르·다르장」이 이번달에 대대적인 自祝宴을 연다는 외신보도가 있다。

「투르·다르장」은 비단 最古일뿐만 아니라 파리에서 최고급으로 꼽는 레스토랑의 하나다。「막심」의 聲價가 떨어지면서 흔히 「투르·다르장」을 제일로 치기도 한다。

파리의 센江邊, 생 루이島를 마주바라보는 곳에 위치한 「투르·다르장」은 겉보기에는 보통 아파트건물과 다름없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면 고풍스런 실내장식이 격조높다。 이집에서 한끼먹으려면 포도주를 보통것으로 마시더라도 1인당 1백달러는 준비해야 한다。 역사가 긴만큼 그동안 역사적 인물가운데 누구누구가 다녀갔다는 것이 이집의 자랑이고 독일의 빌헬름1세, 러시아의 알렉산더2세부자가 회식했던 식탁 같은것은 따로 전시를 해놓고 있다。 이식당을 특히 유명하게 만든것은 오리고기요리여서 1890년이래 손님들에게 자기가 먹은 오리의 일련번호를 카드에 적어 기념으로 나누어주고 있고 손님으로서는 이것이 이 집을 찾는 큰 재미기도 하다。 금년초 어쩌다 이 식당의일석을 차지할 영광이 있었을때 얻어나온 번호는 608、659였다。 백년이 미처 못된사이에 60만마리의 오리가 소비되었다。

그러나 「투르·다르장」이 놀라운것은 이 오리의 마리수가 아니라 4백년동안이나 식당으로 존속해 왔다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하고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을 수소문했더니 馬場洞에 있는 「할머니집」 일것이라고 했다。

「할머니집」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가보니 屋號가 없는 집이다。 간판은 없지만 무허가는 아니어서 세금낼때만 쓰는 서류상의 이름이 「馬場屋」。 주소는 馬場洞514번지。 올해 94세된 許陰田할머니가 주인이다。 할머니가 32세때 이집에서 잡화가게를 차렸다가 42세때인 1930년 음식점으로 바꾼이래 한자리에서 52년째 내려온다。 동란때 피난갔다 온것을 제하면 꼭 50년이다。 일정때는 초가집이었는데 해방되던해 지금의 기와집으로 고쳐 지었다。 며느리와 손자며느리까지 女人3代가 장사를 한다。 한상에 1천2백원 받는 백반이 솜씨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最古지만 파리의「투르·다르장」과 서울의 無名屋은 極과極의 차이가있다。그것은 國富의 차이와 상관없다。傳統의 차이다。傳統을 만드는 傳統의 차이다。 역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기도 하다。역사에 대한 敬意의 차이가 하나는 세계제일로、하나는 無名으로만들었다。

우리에게 50년이면 짧지않은 持久力이기는 하지만、그나마도 우리나라에서는 대견하기는 하지만、그래도 4백년앞에서는 무색한 것은 역사를 보는 視野의 길이、역사를 숨쉬는 호흡의 길이에 그만큼 차이가 있기때문이다。

「투르·다르장」이 개업한 해는 壬辰倭亂이 일어나기 10년전이다。 壬辰倭亂때의 밥집이 지금 남아있다고하면 우리의 역사는 얼마나 堂堂하고 綿綿해보이겠는가。

프랑스에서는 역사의 때가 조금만 묻은 건물이면 역사적기념물로 지정하여 受難없이 닦아내고 고치고한다。 역사의 美裝이다。 이것이 전통이 된다。

초갓집이 무너지면 기왓집을 세우고 그자리에 다시 돌집을 짓고하여,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어가면서 몇백년을 이어오는 음식점하나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전의 맛을 씹을줄아는 전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버그먼의 棺운구 지난달 29일 암으로 세상을 떠난 잉그리드·버그먼의 관이 1일 가족장례식이 거행될 런던 메릴본의 스웨덴계 교회안으로 운구되고있다。 버그먼은 장례식이 끝난뒤 시내의 한화장터에서 화장됐다。 【런던 2日 UPI電送=聯合】

催眠術 널리利用

★수술·性生活·선수記錄향상

한때 사기의 일종으로 간주되기도 했던 최면술이 오늘날 정신병원을 비롯한 각종 병원에서의 수술과 치료에뿐 아니라 운동경기 기록 향상 부부간의 성생활문제해결에도 널리 이용되고있다。

지난 8월30일부터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市에서는 전세계 44개국에서 6백40여명의 의사·심리학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국제최면술및 정신신체의학총회가 열리고 있다。

에딘버러市소재 메도 뱅크스포츠센터의 피터·웨스터박사는 미국의 테니스 스타인 아더·애시선수가 경기도중 자기최면법을 이용하고있는 광경을 목격했으며 골프선수인 잭·니컬러스는 경기에 앞서 시야에 그린공과 녹색의 필드만이 보일때까지주변에 신경을 쓰지않기위해최면술을 이용하고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다고 말했다。 【런던=AP】

海外토픽

후세인大統領 통역관處刑

美·英國間비밀회담 눈치챘다고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의 개인통역관이 후세인 대통령과 미국및 영국관리들간의 비밀회담을 눈치챘다는 이유로처형됐다고 더·시리안·프레스紙가 31일 폭로했다。

이신문은 외국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사형집행이 최근 단행됐으며 이것은 후세인 대통령이 미국및 영국『정책결정자』들과 접촉한 사안을 극비에 부쳐두기위한 것이라고 설명。 【다마스커스=AP】

5分間 인터뷰

日에 歪曲警告·抗議書전달한 在美 朴永昌목사

「神社참배 장려」에 피 끓어올라

그당시 先親도 거부하다殉教

『한나라의 國史란 正筆로 기록한 正史가 아니면 역사적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罪過를 歪曲、美化한 역사교과서를 내 소위 檢定상의 이유를 내세워 85년부터 고치겠다니 언어도단이지요。 아직도 皇國史觀의 迷妄에서 깨어나지못한 일부정치인, 특히 「文部族」때문에 일본이 大道를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을 알았읍니다』

떠들썩한 역사교과서 歪曲논란과 관련、神社참배를 「강제」기록이 없어 「장려」로 표시했다는 日문부성관계자의 주장을 7월말 미국에서 본국신문을 통해 읽고 손가방하나에 몇가지 자료만 챙겨갖고 東京으로 달려가 항의서와 경고서로 일본정부 주장을 반박했던 朴永昌목사(67·대한南加州교회담임목사)는 좀처럼 분이 풀리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한다。

『20일간 東京에 머물면서 스즈끼(鈴木)수상, 후꾸다(福田)衆議院의장, 사꾸라우찌(櫻內)외상, 오가와(小川)文部相, 마쓰노(松野)國土廳장관등에게 명확한 증거에입각한 항의서와 경고서를통해 일본정부 처사를 맹박했지요』

朴목사는 先親인 朴寬俊장로가 바로 神社참배를거부했다가 皇室不敬罪 등으로 殉教했기때문에 일본정부의 「장려」주장에 피가 끓어올라 참을수가 없었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에의하면 故 朴장로는 平壤의 이름있는 開業醫로 39년 일본제74회 帝國議會(현衆議院)가 소위 종교법안을 상정했을때 외동아들로 당시25세였던 朴목사를 대동, 방청중 숨겨들여온「神社참배철폐하라」는 長文의 경고서를 의석에던졌다는 죄로 平壤감옥에서 6년간의 옥살이끝에 45년3월 조국광복도 보지못한채 70세로獄死한 殉教50人중의 한분이라고 밝혔다。

朴목사의 史料에 입각한 반박은 朝日、每日、讀賣등 주요신문과 NHK방송등에서도 크게 보도했다。

족 3대 신문은 「神社참배는 역시 強制」란 표제로 진실을 크게 보도했고 東京외신기자 클럽에서 내외기자가 모인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같은 내용을 밝혀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또한 일본교회와 7개 공공기관에서 설교와 강연、좌담회등을 통해 일본정부가 歪曲한 역사대목을 하나하나 올바르게 설명、일본의 학자、양심적인 지식인、종교인에게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고 전했다。

특히 東京극동방송국에선 經濟大國의 오만을 통박한 자신의 自作詩 「日本아 듣거라」(닛봉요기께)를 방송하기도 했다。

『독립기념관 건립은 晩時之歎이긴 하나 정말 훌륭한 결정이지요。 본인이나 美洲교포들이 가지고있는 우리 독립관계 史料를 모두 모아 기념관에 보내겠읍니다』

克日은 곧 知日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老목사의 對日觀은 명료했다。 【盧縉煥기자】

記者의 눈

아라파트

아라파트PLO의장이 西베이루트를 떠났다는 보도가 나간 지난31일 한독자로부터 항의전화가 왔다。 이독자는 베이루트를 여행한적이 있다고했다。 그때 팔레스타인들과 여러번 얘기를 나눌기회가 있었는데 무심코 PLO대원들을 게릴라로 호칭했더니 몹시 불쾌해하더라고 했다。

그의 주장은 한국일보에 실린 스케치기사중에 게릴라라는 명칭보다는 「팔레스타인독립군」으로 부르는것이 타당하리란 것이었다。

공감이가는 얘기였다。 통화가 좀더 길어졌다。 통신사에서 보내온것을 야근자가 급히 처리하다보니 「PLO대원」혹은 「PLO戰士」로 할것이 그렇게된 것같다고 옹색한 답변을했다。 그러자 그는 『미국의 통신사야 유태인입김이 세니까 그럴것아니냐。 우리도 日帝때 임시정부와 독립군을 가진적이있지 않느냐』라고도했다。

아라파트는 현재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다。 튀니지로 가는 길에 기착해있는 것이다。 그는 2일상오(한국시간) 레이건의 새로운 중동정책이 발표되기 몇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들은 피점령상태에 있음으로 모든 수단과방법을 동원、투쟁할 권리가있다』고 선언하면서 당장PLO망명정부를 수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유를 보였다。

아라파트의 기자회견은 레이건의 새로운 중동정책을 까맣게 모르고 한 것이었다。 레이건의 새로운 정책내용에 PLO나 아라파트에 관한 것은 없다。

같은 날짜에 와인버거美국방장관이 『군사적세력으로서의 PLO는 이제 끝장이 났으며 PLO는 팔레스타인들의 진정한 대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아라파트에게는 「등뒤에서 지옥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노벨평화상후보로지명된 하비브美중동특사의 안경쓴 얼굴이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아랍8개국에 분산 철수한 1만여명의 팔레스타인「독립군」들의 검게탄 얼굴들이 하나하나 눈앞을스쳤을 법도 하다。

아라파트는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했을수도 있었다。 국가간의 관계가「신뢰」라는 센티멘털한 단어로 지탱되리라고 믿기에는 그가 겪어 온 고난은 너무나 많은 지혜를 주었을 테니까。

역사의 조명을받은 민족은 지금까지 국가를 건설한 민족뿐이었고 국가를건설하는 일은 이렇게 어려웠다。「白凡 아라파트여 용기를」이렇게 외칠수 있는 것은열혈독자의전화대로역사적공감대를가졌기때문이다。 【外信部·朴來富기자】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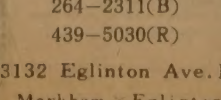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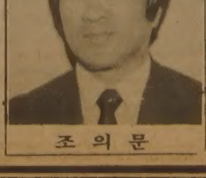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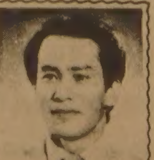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 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선
(R) (416)633-7892 (David Chae)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길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R)276-4373

종합보험

김 흥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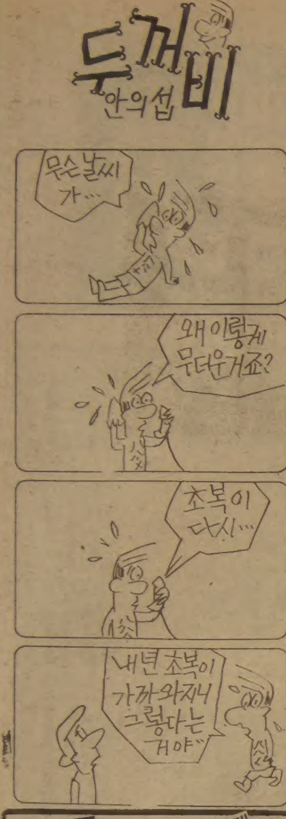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건축抑制지역에 돈받고 許可

2개區廳수사 공무원2명立件 업자1명拘束

서울시산하 일부구청의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건축및 설계변경허가를 둘러싸고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치안본부 수사대는 2일서울鍾路·永登浦등 2개구청에대한 수사에 나서, 鍾路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삼협주택 대표이사 朴수길씨(39·서울江南區淸潭洞 산6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鍾路구청도시정비과장 李榮辰씨(30)、도시정비계장 李壽連씨(47)、주택과허가담당 金裕成씨(26)등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永登浦구청건축과장 李忠烈씨(31)、건축1계장 洪淳球씨(46)、건축기사보 趙民柱씨(36)、기원보 徐源福씨(28)등 4명을 소환했다.

경찰에 의하면 입건된李씨등 3명은 구속된 朴씨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鍾路區平倉洞161의3등 4필지의 대지2천7백52평의 연립주택 54가구분에대해 업무처리협조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0~50만원씩 모두1백4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들은 「표고 70m 이상의 땅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않는다」는 서울시 방침을 어기고 표고1백10m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것.

구속된 朴씨는 이밖에도 연립주택을 분양한뒤 수입금 전액을 세무서에 신고하지않고 1억1천5백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사실도 밝혀졌다.

永登浦구청직원들은 大林洞의 대지 90평 연건평 1백32평짜리 단독건물 건축주 吳모씨에게 지난해3월 건축허가를 내준뒤 지난연말 준공검사를 해주면서 금품을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서울시는 입건된 李씨등 3명을 모두 파면키로 하고 나머지 공무원도 경찰조사결과에 따라 파면할방침이다.

慶北에 眞性뇌염2명

全南등서 하룻새 擬似 24명發生

【大邱·木浦】1일 하루동안 경북도내와 전남木浦지방에서 모두 24명의 뇌염증세환자가 또다시 발생했다.

경북도내에서는 이날 뇌염증세로 윤모군(7·尙州郡中東面回上里)이 대구동산기독병원에 입원한것을 비롯, 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한편 木浦지방에서도 이날 하루동안 17명의 뇌염증세환자가발생, 모두 시내 성코롬방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있다.【鄕】

【大邱】경북도내에서 의사뇌염환자가 급증하고있는 가운데 이중 2명이 진성으로 판명됐다.

2일 경북도 보건당국은 뇌염증세로 경북대 의대부속병원에 입원중인 李모군(9·月城郡江東面)과 파티마병원에 입원하고있는 金모군(4)등2명이국립보건연구원의혈청검사결과 진성뇌염환자로 판명됐다고밝혔다.【鄕】

때이른 新入社員 채용경쟁에

大學4년생「授業공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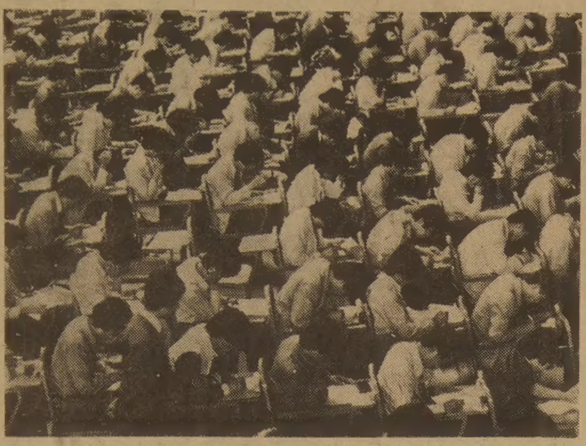
"人材확보"이유 8·9월집중

합격자 研修 出勤까지 시켜

大學서는 就業率높이려 눈감아줘

시험時期조정 勉學 해치지말아야

재벌회사등 큰기업체와 금융기관등 각급단체에서 신입사원을모집하면서 채용시험을 경쟁적으로 앞당겨 실시하는 바람에 일부학생들이 4학년2학기 법정수업일수를 채우지못하는「수업공백」이 생기고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여름방학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입사원채용공고를 낸뒤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모두 신규사원채용을 서두른다. 또 일부회사에서는 일단 입사한 사원중 성적이 우수한 신입사원이 다른 경쟁회사로 가는 것을 막기위해「연수」또는「오리엔테이션」이란 명목으로 출근시키거나「월급」까지주고 있는실정.


◇취업의문을 노크하는 대학4년생들。이들은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8~9월에 채용시험을실시하는바람에 일부학생들은 2학기수업을 공치고있다。

이처럼 신규사원채용시험이 대부분 8~9월에 집중적으로 실시됨에따라 취직이 된 대학생은 물론 실패한 학생들도 다른 채용시험에 준비하기 위해 2학기 강의에 소홀하게 마련이다.

또 대학은 대학대로「연간 최소 1백80일이상 2백10일」의 법정수업일수를 채우기위해 2학기강의를하고있지만 빠진학생이 많아도「대학의 취업률」을 높이기위해 눈감아주고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현상은『결강과 휴강이 없도록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정수업일수를지키라』는 문교부지시에도 정면으로 위배될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학생을 자신이나 기업에도 지(知)적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빚고있다.

이에대해 문교부 당무자들은 전반적으로 취직시험시기를 늦춰 법정교육을 끝내도록 해야할것이라고 말하고있다.

문교부는 지난달 20일『대학의 가장 큰 과제는 강의와 수업이다』고 못박고「어떤 구실이나 명분으로도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수는 없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의 신입사원모집은 8월부터시작、9월초에 피크를 이루어 대학4년생들은 취직을 하기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2학기 수업과 강의를 빼먹어야하는 실정이다.

기업들의 이같은 조기채용풍조는 2~3년전부터 일기시작한것으로 대규모로 사원을 뽑는 재벌그룹들이 인재확보를 이유로 경쟁적으로 모집시기를 앞당기고있다.

특히 올해에는 각기업들의 신입사원 모집시기가 예년보다 10일정도 앞당겨져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있다.

2일 업계에의하면 1천6백명을뽑는 現代와 1천450명을뽑는 三星이 오는 12일、1천명을뽑는 大宇와 8백명의 럭키가 11일에 입사시험을 보고 합격자의 이탈을 막기위해 곧이어 사내연수를 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鮮京(8백명)、국제(5백명)、코오롱、한진등도 오는 10일을 전후해신입사원채용시험을 볼예정이다.

모집시기가 가장 늦은곳은 금융단으로 10월 중순경으로 잡아놓고있다.

이때문에 합격자들은 물론 불합격자라도 취직을 하기위해서는 여기 저기 뛰어 다녀야 하기때문에 각기업들이 예정대로 입사시험을 치를경우 9월중순부터는 4학년의 2학기강의가 부실할수 밖에 없다.

대학당국과 교수들은 학칙상 수업일수의 4분의1을채우지못하면 학점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 딛는 계기가되므로 어느정도 묵인해주고있다.

일부대학에서는 취직이 확정되거나 준비중인학생들에게 리포트를 제출케하거나 가정학습(?)을 빌어 학점을 줄 근거를마련하는 기현상을 빚고있다.

서울大의 한관계자는『학생들이 취업을못해 어려움을 겪는것보다 일찍 취업하는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런풍조는 일본과 우리만 있는것으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대학교육은 취업을위해서 있는것만은 아니다』면서『모든 기업들이 취직시험을 2학기학사일정이 끝나는 무렵인 11월중순이후로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李鍾九기자】

고교생、防犯員 찔러

強盜모의들키자 2명중 1명도주

1일 하오2시께 서울東大門區墨1洞122의148주택가 골목길에서 Y고교3년金모군(17)과 같은반 친구黃모군(〃)등 2명이 강도를하려고 범행대상을 찾다가 불심검문을하던 태릉경찰서墨1洞파출소소속 방범대원 金光男씨(31)와 朱長均씨(30)등 2명을 과도로 찌르고 도망치다 金군은 붙잡히고 黃군은 달아났다.

방범대원 金씨에의하면 주택가우범지대 방범순찰을 하다 골목에서 서성거리던金군등을 수상히여겨 검문을하려하자 갑자기 金군과 黃군이 각각가방에서길이15cm가량의 칼을꺼내위협하고달아났다.

방범대원金씨와 朱씨는칼을 휘두르며 달아나는 이들을 5백여m추격, 붙잡으려 하자 黃군이 칼로 金씨의 옆구리를 찌르고 金군은 돌멩이를 집어 朱씨의 머리를치고 재차 달아났다. 방범대원들은 상처를 입은채 다시 20m가량을 추격했는데 金군은 이들의 곤봉을맞고붙잡혔다.

Y고교 3년 같은반학생인 이들은 경찰에서 여행갈돈을 마련키위해 이날사고장소 부근에서 강도를하려고 범행대상을찾다가 불심검문에 걸렸다고말했다.

이들학생들은 이날낮 12시께 祭基洞 홍파국민학교앞에서만나 범행에 쓸 칼 스타킹 손수건등을 샀다.

방범대원 金씨와 朱씨는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남편 목졸라 殺害

부부싸움때 매맞은 아내

2일 상오2시께 서울九老區禿山2洞1051의3 鄭重九씨(42·상업) 집안방에서 鄭씨의 부인李瑞子씨(33)가 부부싸움끝에 나일론보자기로 남편鄭씨의 목을졸라숨지게했다.

李씨는 이날 상오1시께 남편鄭씨가 만취된채 돌아와『불구하고 꼴보지마라, 어편남자와 어울리느냐』며 마구때린후 지쳐서 잠이있는사이에 부엌에있던 나일론보자기로 뒤에서 목을졸라 숨지게했다.

李씨는 남편鄭씨의 시체를 이불로 덮어두었다가 3시간후인 상오5시께 시누이 정분순씨(45·永登浦區楊坪洞)에게 전화로『남편이 술을마시고 누군가와 다투었는지 피를흘리며 들어왔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숨져있다』고연락, 달려온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鄭씨의 목에서 교살흔을발견, 李씨를 추궁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숨진 鄭씨는 어렸을때 추락사고로 왼팔이 절단된 신체장애자로 14년전 친척의중매로 李씨와 결혼, 2남1녀를 두고 가방소매상을 해왔는데 평소 불구인것을 비관한데다가 의처증이 심해 자주 만취된채 귀가해 부인등 가족들을 마구 때리는등 가정불화가 잦았었다.

◇드러나는 학살현장 지난1923년의 關東大地震 당시 日本人들에 의해 학살된 韓國人 희생자들이 아직도 매장돼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도오꾜(東京)의 아라가와江 바닥에서 시체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東京2日AP話=聯】

日、한국인 遺骸발굴작업

關東대지진 학살 현장서

【東京UPI=聯】일단의 일본인들은 1일 59년전 關東대지진당시 학살된 약6천명의 한국인유해 발굴작업에 착수했다.

『이작업의 1차적 목적은 학살된 한국인의 영혼을위로하고 일본인들로하여금 다시는 이같은잘못을 저지르지않게하는데 있다』고 발굴작업을 지휘하고있는 금년51세의 국민학교 교사 구니따·유끼에씨는 말했다.

지난 1923년9월1일 리히터지진계로 강도8을 기록한 대지진은 도오꾜와 요꼬하마(橫濱)를 포함한 일본의 간또(關東)지방을 강타, 9만1천3백44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1만3천2백75명을 내고 2백54만8천92채의 가옥을 파괴했었다.

全大統領 弔意전달

故姜錫天옹 빈소에

全斗煥대통령은 2일하오 關東大地震 59주년에 즈음한 희생韓人위령추모강연회에서 日帝만행을 폭로한뒤 증언도중 쓰러져 숨진 故姜錫天옹의빈소(서울城北區貞陵1洞113의45)에 관계비서관을보내 조의를 표했다.

安重根의사 탄신103周

각계人士 모여 追念式

安重根의사 탄신 103주년 추념식이 2일 상오10시 서울南山安의사기념관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사단법인安의사숭모회(회장 李殷相)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安의사의 조카 安珍生씨(68·전버마대사)등 유족과 金相吉광복회장、尹致暎전서울시장、李應俊장군등 각계인사40여명이참석했다.

東國大 黃壽永총장은 이날 추념사에서『安의사의 참된 인간상과 安의사가 우리역사에 남긴 업적을 더욱더 연구발전시켜 민족정기의 원동력이 되게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추념식은 추념사와安의사에 대한 묵념, 헌화등의 순서로 20여분간 진행되었다.

8급이하公務員 邑面長에任用權

내무부는 2일 읍장·면장에게 8급이하공무원 임용권과 1천만원한도내의 개발사업재량권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읍·면장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 제도는 9급공무원을 포함한 장기근속자 3천1백명이 승진이가능하도록 직급을조정하고 새마을지도자등 지역사회 유공주민의 공무원특채범위를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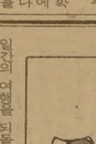
내무부는 또 오지·낙도읍·면출장소장의 직급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제도는 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주로해 현재6천9백5명의 비연고 읍면직원을 본인의 희망에따라 연고지에서 근무할수있게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읍·면장에게 소속직원의 전출입 동의권을 주도록했다.

자랑스런 旅行

KAL 스튜어디스 朴榮姬양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朴榮姬양(27·사진)은 생애에 가장 긴장되고 보람찬 여행을했다.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를 순방한 全斗煥대통령내외분을 모시고 지구를 한바퀴 돈 것이다. 거리도 4만7백㎞로 지금까지의 여행중 가장 길었고 여행의 뜻도 한국을 아프리카에 심는다는 점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다.



朴양은 1일하오4시30분 대통령 특별기가 金浦에 도착, 대통령내외분이 환영식장으로 향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려 하지않았다. 17일간의 여행을 되돌아 보는듯했다.

처음엔 대통령을 모신다는 점에서 긴장이 됐다.『혹시 실수나 하지않을까』하고 신경이 곤두섰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금방 사라졌다.

대통령내외분은 승무원들을 가족처럼 온화하게 대해주었다. 비행기안은 금방 가족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대통령은 대서양상공을 지날때는 조종석을찾아 明義昌기장(52)에게 현재위치와 지상과의 교신내용, 항로등을 묻는 자상함을 보였다.

대통령내외분은 기내에서 양식을 많이 들었는데 특히 과일과 야채를 즐겼다는 귀뜀. 비행기에는 영화와 음악등이 두루 마련돼 있었으나 대통령은 많은 시간을국내에서공수되어온 일간신문을 읽는데 할애했다.

"大統領이 家族처럼 대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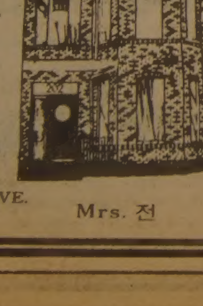
5천2백시간의 비행시간을 가지고 있는 朴양이지만 아프리카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통령을모시고 여행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그녀는 설레는 마음을 주체하기 힘들었다.

밀림을 휘젓고다니는 타잔의 함성과 사자등의 포효소리가 귀에들리는듯했다. 각가지 장식을하고 리드미컬하게 춤을추는 토인들의 모습도 떠올랐다.

그러나 처음찾아간 아프리카는그처럼 낭만이있는 대륙만은 아니었다. 검은대륙은 꿈틀거리고있었다. 대부분 다음비행을위해 호텔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잠깐 잠깐본 아프리카는「그들나름대로의 이상을향해 무섭게 전진하고있는듯한 인상이었다.

『아프리카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있는듯 했읍니다. 기후등 어려움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무섭게매달렸고, 그런점에서 한국은 좋은동반자가 될것같았어요』【李鎭기자】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다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수리·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 9 : 30AM~7PM
금~ 9 : 30AM~8PM
토~ 9 : 30AM~6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R)

센터 曺東佑 肝炎입원

長身농구代表 아시안·게임에 못나가

完治위해 2~3개월 요양필요

印度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국남자농구대표팀 센터 曺東佑가 급성간염으로 고려병원에 입원, 아시안·게임서 뛸수없단 진단을 받아 적신호가 되고있다。

曺東佑(26·1m94·三星電子)는 지난달26일 의사장티푸스증세를 보여 정밀진단결과 급성간염으로 밝혀졌다。

曺東佑는 입원치료를 받으면 완치할수있으나 체중이 평소 93kg에서 10kg이나 줄어들게되고, 2~3개월간의 요양이 필요하기때문에 아시안·게임출전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한농구협회는 曺東佑를 다른선수로 교체할방침이다。

아시안·게임서 한국의 강적은 中共을 비롯해 필리핀, 日本, 북한등으로 꼽히고있다。

◇입원한 曺東佑선수

한국、印尼완파

라이온시티컵 청소년축구 2-0

【싱가포르AP=聯】 한국은 1일밤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거행된 제6회 라이온·시티컵 청소년축구대회(만16세까지) 예선리그에서 인도네시아를 2-0으로 완파했다。

한국은 이날 경기에서 후반 2골을 성공시켜 낙승했다。泰國은 카타르를 3-0으로 물리쳤다。

◇1일전적

한 국 2(0-0, 2-0)0 인도네시아

태 국 3-0 카타르

龍山 3년만에 霸權

쌍룡기고교농구

許載 맹활약…徽文高 대파

제18회 쌍룡기쟁탈 남녀고교 농구대회서 龍山高가 남고부 패권을 차지했다。

1일 장충체육관서 벌어진 결승전서 龍山高는 발군의가드 許載의 어시스트·슛、리바운드등 1인3역에 힘입어 徽文高를 81-59로 완파하고 3년만에 패권을 되찾았다。예선리그서 1골차의 패배를당했던 龍山高는 林達林이 이끄는 徽文高를 초반부터 압도했다。龍山은 許載의 어시스트를 받은 韓萬成등이 잘살려 전반을 32-26으로 앞섰다。

許載의 진가는 후반에나타났다。許는 절묘한 어시스트로 골밑찬스를 내주었고、자신이 리바운드는 물론 슛까지 해 徽文추격에 쐐기를박고 81-59로 완승했다。

◇최종일 결승전

▲남고부

용산고 81 (32-26, 49-33) 59 휘문고

李德姬、美민터꺾어

全美오픈테니스

【플러싱·메도우즈(美뉴욕州)AP=聯】 한국의 李德姬는 1일 뉴욕市의 플러싱·메도우즈 국립테니스코트에서 개막된 全美오픈테니스선수권대회 女子단식 1회전에서 美國의 앤·민터를 2-1(6-3、4-6、7-6)로 누르고 2회전에 진출했다。

한국단체 19위

사이클 百km추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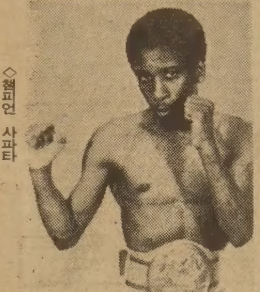
【굿우드(英國)1日AP=聯】 세계 사이클 도로경기선수권대회에 출전중인 한국은 1일 南잉글랜드 굿우드市서 벌어진 1백km단체추발에서 22개참가팀중 19위를 차지했다。한국은 이날 張允虎 金炳善 金鐵石 李鎭玉이 출전, 우승팀인 네덜란드보다 14분가량 늦게 골인했다。

"돈받고 歸國하는일만 남았다"

18일 張正九와 타이틀戰…챔피언 사파타入國

개런티등 11萬8千弗

"권투는 상대적"… 프로경력 20승2패


◇챔피언 사파타

◇도전자張正九

프로복싱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 일라리오·사파타(24·파나마)가 동급3위 張正九(19)와 1차방어전을 갖기위해 2일 상오 내한했다。

지난 7월 日本의 도모리·다다시로부터 타이틀을 빼앗은 사파타는 스피드가 뛰어난 장신 선수다。

스트레이트와 어퍼컷이 예리한 아웃복서。아마전적 32승4패의 기록을갖고 19세때 프로로 전향、지금까지 20승(10KO) 2패를 마크하고 있다。

서린호텔에 여장을 푼 사파타는 2일하오 극동중앙체육관에서 훈련에 들어갔는데 『대전료를 갖고 귀국하는 일만 남았다』며 자신만만하다。

과거 金英煥과 金敦福을 물리친바있는 사파타는 80년3월 東京서 日本의 나까지마·시게모를 물리치고 챔피언이된후 타이틀을 8차 방어에 성공했다가 지난 2월 우루수아에게 타이틀을 상실 했었다。

그는 도전자인 張正九를 철저히 연구했다며 『매우 스피드가 뛰어나고 강펀치보다는 집중타를 퍼붓는선수』라고 평했다。

사파타의 2패는 로페스와 우루수아에게 당한것。張正九는 로페스와 우루수아를 물리친전적을 자랑하고있다。

이같은 전적을 토대로 張正九가 더 우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파타는 『복싱은 상대적』이라고 대답했다。우루수아는 사파타를 침몰시켰지만 우루수아로부터 타이틀을 빼앗었던日本의도모리가자신에게 완패를 당했음을 상기시켰다。

張正九는 사파타보다 4cm가량 작은 1m64cm。아마전적 34승2패를 기록했으며 프로전적은 18전전승(8KO)。상승세의 張은 최근 로드웍을 하다 유리파편이 오른발 뒤꿈치에 박혀 고생했으나 지금은 상처가 아물었고 컨디션도 좋아 매일 5시간씩 강훈련을 쌓고 있다。

張은 파고드는 연습에 치중하고 있다。사파타의 스피드있는 스트레이트를 피하기 위해 상체를 많이 흔들면서 집중타를 날리는 연습을 하고있다。

사파타―張正九의 타이틀전은 당초 오는11일 全州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張측에서 19일로 연기해주도록 요청, 18일에 열리게 되었다。

사파타의 개런티는 10만달러。이밖에 주최측(극동프러모션)에서는 흥행권을 넘겨 받고 대전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사파타측에 1만8천달러를추가지급키로됐다。【金仁奎기자】

無敵의OB 18勝

申慶植2타점 활약…三美또 제압

프로야구 첫시즌 코리안·시리즈가 OB·베어스의 독주로 불발의위기에 몰리고있다。OB·베어스는 1일 仁川에서벌어진 후기리그 경기서 三美·슈퍼스타즈와 6회까지 6-6의 팽팽한타이를 이루다가 8회초 5번 申慶植의 2타점 좌전적시타와 三美투수 吳文鉉의난조로 얻은 4개의 四死球로 3점을 획득, 9-6으로 승리했다。

전기우승팀 OB는 후기서도 18승5패로 단독선두를 달리고있다。

三星·라이온즈는 光州경기서 鄭鉉發의 3점홈런 등 15안타를 터뜨려 11-5로 낙승, 20승6패로 2위를 지켰다。

해태 金準桓은 이날 6회 2점홈런을 날려 통산13개를 기록, 14개의 선두 白仁天 金泰淵에 이어 3위에 올랐다。

◇1일전적

▲인천

	1	2	3	4	5	6	7	8	9	계
OB	1	3	1	0	0	1	0	3	0	9
삼미	0	2	3	0	0	1	0	0	0	6

▲홈런=琴光玉(3회·3점·삼미)

▲광주

	1	2	3	4	5	6	7	8	9	계
삼성	5	0	1	0	0	0	0	5	0	11
해태	1	0	1	0	0	2	1	0	0	5

▲홈런=鄭鉉發(1회·3점·삼성) 金一權(3회·2점·삼성) 金準桓(6회·2점·해태)【이상聯】

▲서울

	1	2	3	4	5	6	7	8	9	계
롯데	2	0	4	0	1	0	0	0	4	11
MBC	0	0	0	0	0	0	2	3	0	5

▲홈런=金容允(8회·2점·MBC) 金容哲(9회·2점·롯데)

◇후기 중간순위 (1일현재)

팀	승	패	승률
①OB	18	5	.783
②삼성	20	6	.769
③롯데	11	10	.523
④MBC	13	12	.520
⑤해태	7	15	.318
⑥삼미	2	23	.080

韓·美·日 팽팽한戰力

세계야구선수권 優勝은 어디로 (下)

본바닥 파워 美國은 急造된 팀웍이 문제

日、한국에 5連敗설욕 목표

自由中國·도미니카·파나마伏兵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 16차례나 우승한 지난대회 챔피언 쿠바가 불참함으로써 이번대회는 한국과 日本、美國의 3巴戰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러나 自由中國과 10회대회 우승팀 도미니카 파나마가 중남미 특유의 열정과 파워로 이 대회 판도에 혼란을 일으킬 다크 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훌륭한 야구기술、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진 미국은73·74년대회서 연승을 기록했었다。그러나 우수한 성인선수들을 프로로 넘기고 밤하늘의 별처럼 넓은 지역에 흩어져있는 대학선수들을 끌어 모으는 작업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이 미국아마야구대표팀의 약점이었다。급조된 팀의 팀웍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야구의 본바닥에서 배우고 익힌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힘은 대단한 것이다。지난해 한국대학대표팀은 韓美대학대회서 급조된 미국대학팀을급습、5승2패의 대전과를 올렸다。불과 10일후 대학선수를 주축으로한 미국팀은 월드게임과 대륙간컵대회서 막강한 힘과 투지로 밀어붙여 완승을 거두었다。마지막 타구를 글러브 속에 넣을 때까지 한시도 안심할수 없는것이 미국야구의 파워다。

1m98의 농구선수를 연상케하는 거인 브래드·파웰을 비롯한 다렐·애커펠즈、시드·에이킨스、존·월러스등 주전급들이 모두 1m80을 넘는 거구로 힘에 넘치는 플레이를 펼칠것으로 보인다。

미국 다음으로 야구인기를 누리고 있는 일본은 지난72년부터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해왔으나 불운하게도 아직 한번도 우승하지 못했다。80년 東京흡구장에서 최강 쿠바에 1-0으로、라이벌 한국에 6-4로 분패、우승의 가장 유리했던 찬스를 놓쳤다。

일본은 야구강국의 명예를 걸고 좌완에이스 구로끼미·요시히로를 중심으로 이번 대회에 도전하고 있다。매서운 타력과 호수비를 자랑하는 1루수 다께찌·유지、3루수 아오시마·겐따등이 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선진강국으로 자랑하는 일본도 세계선수권대회서 만은 한국에 연패、76년 이후 한국에5연패당했다。한국에 대한 설욕도 일본대표팀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다。자유중국은 한국이 경계해야할 가장 까다로운 적수다。75년때까지 열려오던 아시아선수권대회서 한국은 3차례나 우승 하면서도 자유중국에 만은 악전고투했던 묘한징크스로 꼽혔었다。

세계최강의 리틀야구를 바탕으로 자유중국은 일본에서 영향받은 세기와 대륙적 기질에의한 배짱좋은 야구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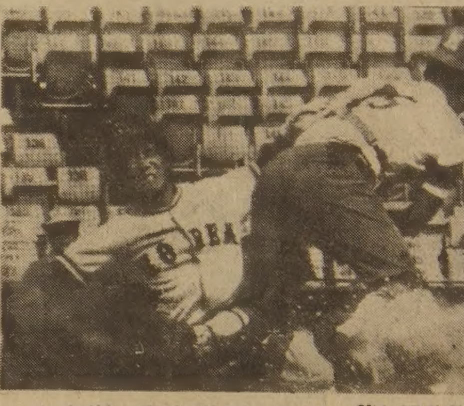
강속구와 슬라이더를 구사하는 우완 에이스 郭泰源을 비롯 낙차큰 커브를 가진 黃庭琪、莊勝雄、劉家齊등이 마운드를 지키며 楊淸瀧、林華韋、趙士強、陳正中등의 장타력、葉志仙의 정확한 타격이 대량득점을 노리고 있다。

도미니카는 라틴계 다운 열정과 중남미팀 답지않은 끈기로 세계야구무대에 돌풍을 일으키는 도깨비힘이다。강타력·호수비의 유격수 켈릭스·헬밥을 중심으로 도미니카는 81년 대륙간컵에서 한국을 4위로 밀어내고 3위를 차지했었다。파나마 역시 도미니카에 못지않은 야구애호국으로 욱일승천의 기세로 세계무대를 위협하는 새세력이다。【方錫餉기자】

◇역대우승국

회	년	개최지	참가국	우승국
1	38	영국	2	영국
2	39	쿠바	3	쿠바
3	40	″	7	″
4	41	″	9	베네수엘라
5	42	″	5	쿠바
6	43	″	4	″
7	44	베네수엘라	8	베네수엘라
8	45	″	8	″
9	47	콜롬비아	9	콜롬비아
10	48	니카라과	8	도미니카
11	50	″	12	쿠바
12	51	멕시코	11	푸에르토리코
13	52	쿠바	13	쿠바
14	53	베네수엘라	10	″
15	61	코스타리카	10	″
16	65	콜롬비아	9	콜롬비아
17	69	도미니카	11	쿠바
18	70	콜롬비아	12	″
19	71	쿠바	9	″
20	72	니카라과	16	″
21	73	쿠바	8	″
22	74	니카라과	11	미국
23	75	미국	9	″
24	76	콜롬비아	11	쿠바
25	78	이탈리아	11	″
26	80	일본	12	″
27	82	한국	10	?

◇서울아마야구선수권대회의 포스터


◇主將 李海昌의 분전 80년 東京서 열린 26회대회 한국―멕시코대전 6회서 李海昌(左)이홈슬라이딩을 하는 모습。李는 이번서울대회서도 한국팀 주장으로 출전한다。

世界그레코로망 레슬링 한국代表 壯途에

82년도 세계 그레코로망형 레슬링선수권대회(9~12일·폴란드)에 출전한 한국대표선수단이 3일밤 출국한다。선수단은 지난달26일 도오꾜주재 폴란드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받았다。

◇한국 선수단

▲단장=金昌圭(협회이사) ▲감독=安川泳(협회이사) ▲코치=安漢泳 ▲선수=李鎬熙·金明基(이상 한체대) 方大斗 趙誠日(이상 조폐공사) 李衍益(전남대) 李相熙(부산위생) ▲국제심판=金益鍾

학생테니스 선수권

李靜明·金一順(女中部) 준결승전에 진출

2일고양군그린테니스코트서 속행된 제37회 전한국학생테니스 선수권 2일째 여중부 단식 3회전서 전국여자대회 우승팀 安養西女中의 李靜明과 金一順이 각각 金恩敬(서천)과 金恩榮(대구)을 2-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제2일 전적

▲남중단식 3회전

金太星 2-1 이덕희
柳基傑 2-1 崔文煥
崔元澤 2-0 金炳善
李昌薰 2-0 成基準
任次勳 2-0 曺成旭
張永鎭 2-0 韓興洙
金學烈 2-0 金在榮
朴旼敎 2-0 奇泰炯
鄭鍾典 2-1 田承鉉
李尙修 2-0 金忠成
朴仁聖 2-0 宋旻錫
朴睿洙 2-1 金應奎
盧鎭植 2-1 洪承助
鄭泰龍 2-0 柳지현
李晏相 2-0 金鎭碩

▲여중단식3회전

李垠周 2-0 權芝允
李美子 2-0 金鶴子
金一順 2-0 金恩榮
金昭榮 2-1 朴銀淑
李亨蘭 2-0 金賢淑
金英玉 2-0 趙英淑
李靜明 2-0 金恩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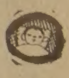
68회 전국體典에 선수萬4千명참가

오는 10월14일부터 19일까지 馬山 晉州 昌原에서 열리는 제63회 전국체육대회에는 서울을 비롯한 13개시도선수단과 7개해외동포팀등 1만6천3백88명이 참가할것으로 집계됐다。

미리온 아이 ⑨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06>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돈은 구했어』

일환이가 되새김질 한듯이 맛없게 밥을 우물대며 말했다。

『돈이요?』

『그래 돈 구하러 나갔었잖아?』

그가 밥숟갈을 놓고 바지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지폐를 한웅큼 꺼내놓았다。

『돈이면 다예요。난 그동안에 아기를 낳았단 말예요』

『지금 와서 나더러 어쩌란 말야?』

일환이가 입술을 실룩대며 말했다。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요。나도 모르겠어요。부모 노릇을 어떻게 하는건지 본적이 없으니까。그렇지만 이럴순 없는거 아냐?아무리 우리가 보고배운게 없어도 이럴순 없는거아냐?』

『내가 죽일 놈이야』

일환이가 쉽게 싸움을 포기했다。오목이는 절망을 주체할수 없어 비실비실 밥상을 들고나왔다。

『아기를 봐요。밉죠?왜 그렇게 미운놈이 나왔아요。조산이래요。가엾게도 글쎄 미리 태어났대지 뭐예요』

실은 아까부터 그 얘기가 하고싶었다。그러나 맞대놓고는 차마 말이 안나왔다。부엌에서 밥에다 대고 단숨에 그렇게 말하고 대답을 기다렸다。방안은 잠잠했다。

오목이는 계속했다。

『마침 안집에 김장하러온 노인네가 아기를 받아줬어요。사람이 아주 죽으란법은 없나봐요。삼우완을 많이 해온 할머니래요。우리 아기가 달을 못채웠다는걸 첫눈에 알아봤어요』

방안은 잠잠했다。

『달을 못채워서 그런지 낳기는 아주 쉬웠어요。당신 나가고 금방 낳은걸요。낳고나서도 아물지도않아요』

오목이는 되도록 그릇부딪는 소리를 크게내면서 한층 드높은 소리로 말했다。

『자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왔을때 일환이는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팔삭동이를 낳았단 말이군』

그가 어깨를 흔들면서 킬킬댔다。그리고 아기와 오목이를 번갈아 바라다 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디었다。그러나 무딘 날(刀)에 찔리는건 예리한 날에 찔리는 것보다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아픔인가?

오목이는 전율하며 아기를 안았다。

『내가 죽일 놈이야』

일환이가 벌렁 누으며 말했다。잠고대처럼 힘렁한 목소리가 오목이에겐 이상한절박감으로 다가왔다。그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아기와 함께 그의 곁에 누웠다。

『식구가 늘었으니 돈을 많이 벌어야 할텐데…』

오목이도 식구가 늘었다는 말이 매우 듣기좋았다。그동안 일환이를 야속해하고 원망하고 겁냈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것같았다。

그래、마침내 식구가 는거야。내가 고 큰 일을 해냈거던。그녀는 돌아누우면서 일환이의 가슴에파고들었다。

『돈은 지금만큼만 벌어도 돼。술만 좀 덜 마시면』

『병동학원을 마칠걸 그랬나봐』

『글쎄, 지금만큼만 벌어도 된다니까。그렇지만 뭐든지 하다마는 것보다 끝까지 해보는것도 좋을거야。난 그책을 안버리고 두었어。고압가스기술 얼마나 근사해。그때 자기그책 끼고나올때 꼭 대학생같았어』

한국일보 533-2361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내고향통닭집

칼국수
오뎅 전문
통만두

658½ BLOOR ST. W.
☎ : 537-0432

오리엔탈 · 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 · 짬뽕 · 짜장면
해장국 · 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티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
빈가게 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Steel Shelving, Painting, Tile, Concreate,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전화 : 669-5784 (Mr. 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전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데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741-6099(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미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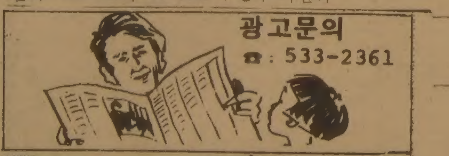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김 용 환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하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 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완인태권도 完八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천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Downtown에 사시는 분으로서 하루 3~4시간씩 집안일 도와 주실 여자분.(Bloor + Jane지역)
전화 : 769-4366 오후6시 이후 김.

주말 유경험자 Helper 구함
(남·녀 관계 없음) 낮12시~밤11시
1114 Yonge St.

Part Time 웨이트레스 구함.
Mon.-Fri. 11:00a.m.-3:00p.m.
전화 : 368-2470 (after 2:00 p.m.)

도나스숍에서 밤에만 일하실 여자분 구함.
(다운타운지역) 밤11시-아침7시
풀타임 또는 파타임. 398 Church St.

씨알학교 운전수 구함.
동쪽 버스 운전하실분 구함.
전화 : 960-0074

점심시간 Part Time 웨이트레스 구함.
오전11시30-~오후2시30분 (3시간)
전화 : 757-6334

Shoe Maker(Finch & MacCowan Mall)
Helper 구함. (Full Time)
전화 : 291-8367(B)

First Canadian Place에 있는 Juice Bar에서 일하실 용모단정한 여자분 구함(18세-25세) 월-금(주말은 쉼)
전화 : 438-0403(6시이후 Mrs. 유)

5일에 $13로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 수 있읍니다.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조흥은행	363-3448

크레딧·카드를
使用 하세요.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개인지도

PIANO, THEORY & SINGING LESSONS
AFTER 5 p.m. 2284 DUFFERIN ST.
PHONE 787-0007 PROFESSOR MORFEA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매매

Private Sale(Bungalow Type)
타주 이주관계로 가옥 급매.
4 Bed Rm. 2개의 차고(Double Garage)
Asking : $110,000
(Morning side & Lawrence 지역)
전화 : 281-0963 (5:00 p.m 연락바람)

Restaurant for Sale.
near the Christie Subway. Fully equipped.
Fully licenced under L.L.B.O.
Immediate Occupancy Reasonable Price.
Ask Miss Yen. 536-6769 or 532-7489

〈채소 염가 판매〉
미시사가 농장
◉판매시간: 9월은 토요일만 오픈. 시간 12~6:00시
◉판매방법: 칼과 Box 준비. 직접 뽑아 가심.
◉채소종류: 배추, 여러가지 무 있음.
(열무김치·풋배추·국거리·저장류)
◉장 소: Eglington과 HWY10 교차에서 서쪽으로 1마일 가면 Second Line있음. 북쪽으로 500m.
◉연락처: 622-5509

(1)Variety Store $109,000(스카브로)
(2)Variety Store $28,000(Finch & Islington)
(3)Coin Laundry & 건물 $159,000(Bloor)
(4)건물 : Bloor & Christie. $154,000
전화 : 481-3443(B), 745-5485(R)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황 순 일

Business Opportunity
위치: Borough of York. 매상 대단히 양호함
번창한 곳에 위치한 최고의 여건을 갖춘 과일과 야채가게 좋은 리스. 꼭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Mr. Gim Gounelas 536-5600
Premore Real Estate Ltd.

SERVICE STATION
2. BAY GARAGE-SNACK BAR.
Highway 10 North of Brampton
One Acre Corner Lot. $80,000.
Down Payment. Mr. William.
251-4656 Albany Real Estate Ltd.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은 쉼). 5년 리스
23 Helen St. Missi. Ont. 전화 : 274-7010

Variety Store
주매상 : $4,200. 리스 : 5년+5년 아스킹 : $40,000+스탁
Rent: $600. 전화 : 266-7833 Mr. Kim

〈해밀톤〉
버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2층살림가능.
전화 : 1-527-6974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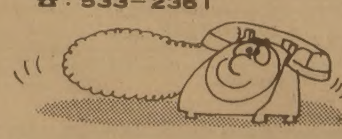
베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좋은 가격으로 바쁜거리에 위치한 Variety Store. 주인 은퇴로 급히 팝니다. Call Mr. Messina
Cabot York Realty Inc. 781-6151.

카드(Card) 렉 (4 ft.) 팝니다.
전화 : 769-5956

다운 Town Mall안에 있는 가게를 일손이 모자라 급히 팔고자 함. 옷과 Varity 겸함. (혼자서 운영가능)
전화 : 536-1914 (Mr. Yong)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집렌트

House for Rent. (3 Bes Rm.: 6 Rms)
31 Barton Ave. near Bathurst. 가격은 드는 사람에 따라 적당히 조정될 수 있음. 447-1869 (Mr. Don Fenton)

아파트렌트

단기·장기간에 상관없이 방 Rent하실분. 특히 여행하시는 분들에겐 더없이 편리한 여건임. 693 Bloor St. W.
(Christie Subway옆 아리랑식당앞)

방세놓음. Pape Subway에서 1 Block 거리.
노인부부 혹은 여자분 환영함. $260/M.
전화 : 282-0236, 968-6284

방세 Two (퀸×St.Clair)
One (Dundas×George.St)
Tuesday 226-2077, 763-3289

가게렌트

Variety 혹은 Grocery Store에 적합한
빈 Space Rent 합니다. 1500 sq.ft.
774 St.Clair W.로 직접 내방 바람.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저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광고문의. 신청 : 533-2361~4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g.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세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매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랑)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수분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